

중국을 주제로

제 14 호, 1991. 9 / 10



中國語文宣教會

목 차

◆ 말씀	2
· 기록의 감화력 /방지일 목사	
◆ 선교일언	4
· 소련사태와 중국선교 /이요한 간사	
◆ 중국선교 논단	6
· 중국선교의 적신호와 기본인식 /왕쓰웨이 전도사	
◆ 대담	9
· 방지일 목사님과 함께	
◆ 교수칼럼	13
· 문화배경과 선교 /송창기 교수	
◆ 중국인이 본 중국선교	16
· 중국선교와 중국선교사명자(Ⅱ) /유소충 목사	
◆ 정기세미나	18
· 중국교회의 상황과 실태 /박화목 목사	
· 중국전통문화의 특징 /문석운	21
◆ 중국의 종교정책	24
· 전국양회 제2차회의에서 본 미래 삼자회의 발전	
· 외로운 올림	28
◆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V)	31
◆ 중국기독교인물 소전	34
· 뉴욕화교부두 선교의 개척자	
◆ 대륙성도간증	37
· 한 공산당원의 구원	
◆ 중국어로 찬양을	41
◆ 중국의 민속풍물이야기	42
· 흥미있는 이색 구혼담	
◆ 내가 좋아하는 말씀	44
·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경준	
◆ QT를 합시다	46
· QT나눔의 유익 /박원석 목사	
◆ 중국어 성경공부	48
· 빌립의 세례	
◆ 사막의 단상	50
◆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중국동향	52
◆ 중국을 위한 기도제목	60
◆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소식	62
◆ 중국어문선교회 소식	65
◆ 알림	67

표지설명 :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 중국 사람들

“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 (행 16 : 9)

기록의 감화력

방지일 목사(본선교회 고문)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
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
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은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
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시편 45:1-4)

사람은 날개도 없다는 이 짧은 인생을 거쳐 가
면서 남기고 가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남기는
그 자취가 같지 않고, 또 남기는 분량이 적고 많
은 차이 혹은 그 가치의 많고 적음의 분간이 있
을 수 있겠으나 아무튼 무언가 남기게 되는 것입
니다.

때론 그 남긴 것이 현실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
어 보이거나 후대에 그 엄청난 가치로 역사에 큰
각광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선교핸드북」을 발간하게 되
어 축하예배를 드리면서 본선교회의 과거를 한번
회상하고 앞으로의 큰 발전을 기하려는 의도도
있으려니와 한편 이 책의 발간은 주님이 분부하
신 복음사역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 그
대로 이 「핸드북」은 손 안에 늘 간단히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책으로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 정중한 감사를 드
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욱 유효적

절치 사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이 우리 모
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다른 남김보다 기록의 남김은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도 되려니와 공간의 장애 없이 시간적으로
후대에까지 큰 참고로 보다 나은 선교활동을 전
개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며 또 그 값어
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손길
에게 치하도 드리거니와 이런 성의와 지혜를 주
신 하나님께 마땅히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
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선교
의 고상한 뜻을 지닌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큰
힘과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로 자축하고픈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수고한 손길들 위에 하나
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하면서 이 책
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경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에 나타난
것을 볼 때 필객의 붓이 무엇을 기록하였다는 것



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허는 말로, 필객의
 붓은 글로 그 하는 일이 왕에 대해 말하는 것입
 니다. 지은 글이나 말이 왕에 대한 것입니다. 왕
 은 항상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고 축복을 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무장하고 칼을
 허리에 찻습니다. 이는 적을 방비하여 주심이며,
 이렇므로 위엄 가운데서 진리와 공의로 처리하시
 니 온 백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에게는 승리로 안으로는 안전하게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찬양하는 입술로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써내는 모든
 글도 이 범주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승천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사명을 맡기셨고 이를 감
 당하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
 종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역에
 쓰임받음이며 외람되게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

다른 남김보다 기록의 남김은 현실
 적으로 널리 이용도 되려니와 공간의
 장애 없이 시간적으로 후대에까지 큰
 참고로 보다 나은 선교활동을 전개하
 는 데 큰 힘이 되리가 생각하며 또 그
 값어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를 발간
 하기 위한 손길에게 치하도 드리거니
 와 이런 성의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
 니다.

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지극히 영광스
 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록을 남기는 업적이 우리 중에
 부단히 계속되어 이왕이면 문화재적 가치로도 넓
 게 공헌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더욱 감사
 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축하예배가 앞으
 로 더 큰 역사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서 실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오늘의
 이 기쁨을 우리 다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

소련사태와 중국선교

얼마 전 소련에서 보수 반동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나 혼미를 거듭하던 며칠 동안 그야말로 세계의 이목이 모스크바로 쏠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30억 불의 대소원조 실시 여부와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영향 등으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사태추이를 지켜본 바 있다.



이요한 간사(본선교회 총무)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소련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응이었다. 중국은 소련의 쿠데타 발발소식에 접하면서 전에 없이 신속하게 사실보도에 임했으나 며칠 후 쿠데타 실패의 분위기가 짙어지자 일제히 목소리를 죽였다가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뒤늦게 '소련의 장래는 전적으로 소련인민들이 결정할 일'이라는 짹짹한 논평을 끝으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 실패에 뒤이어 내몽고 자치구와 영하 회족 자치구 및 서장(티베트) 자치구에 내려진 계엄령과 북경 일원에 내려진 준전시 체제령 각급 단위의 정치학습 강화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련의 쿠데타 실패에 따른 북경 당국의 낭패감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선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반응들을 종합해 본다면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발

견하게 된다. 우선 현중국정부의 유화적 종교 정책도 '통일 전선' 원리에 입각한 전술적 책략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선교 정책 수립이나 시행과정에 있어서 '뱀'과 같이 지혜토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말인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막연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물질은 언제라도 모금이 가능하나 일꾼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교회가 좀더 긴 안목을 갖고 중국선교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중국의 삼자회에서는 김선도 목사님을 위시한 교계 지도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유명 부흥사들까지 다수 초청하여 양국교회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등 유화 공세를 적극화하고 있는 바,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체 중국교회를 돕는 것이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삼자회가 중국정부의 어용종교단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삼자회에 반대하는 교회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소련사회와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결론은 중국도 탈공산주의 세계적 조류에 예외가 아니며 미구에 소련과 같은 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곧 중국정부가 원하던 원치 않든 현재 동구와 소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교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일반학자들은 등소평 등 혁명 1세대의 죽음과 함께 탈공산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가 늦어도 21C를 시작하면서 소련과 같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말인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막연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물질은 언제라도 모금이 가능하나 일꾼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교회가 좀더 긴 안목을 갖고 중국선교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최근의 소련사태가 중국복음화를 꿈꾸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선교적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점을 살펴보았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교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해 나간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중국선교의 적신호와 기본인식

왕쓰웨이 전도사 (중국복음선교회 출판국장)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본격적 중국선교는 '88올림픽 이후부터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90년의 북경아시아게임으로 가시화되었다.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내용은 현재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선교적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욕과 열의로 진행되어 왔다. 여태까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양태는 방송선교·성서배달·교포선교 등 10여 종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정의 성과도 거두었다 (이에 대해 즐고, <중국선교에 대한 반성과 방법의 전환>, 《중국과교회》, 제20호, 1991. 7-8월호 참조). 비록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방법의 포괄성과 선교적 열의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최근 중국 당국에서 표명한 여러 반응과 입장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가 그 방법과 참여방식에 있어 실로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 긴급한 재검토가 요청됨을 알 수가 있다.

빨간불이 켜진 한국의 중국선교

우선 작년 연말에 중국 당국 고위층에게까지 유포된 <해외종교세력의 침투를 경계하자> (《중국과교회》 제20호 참조) 라는 내부문서에서 우리는 중국당국이 한국에서 전개한 방송선교와 교포선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선교 활동들이 중국의 주권침해하여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또 지난 여름에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가 위급한 상태에 처했다는 신호를 잘 말해주는 일이 있었다. 즉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게 중국선교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여행하는 일을 자제토록 요청해 온 것이다. 그 후 관계당국인 문화부는 각 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런 중국측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선교활동의 자제를 당부하였다. 중국당국은 최근 선교하러 온 한국인들이 중국의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비방하고 무분별한 여러 행동들을 자행하는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상의 두 사건에서 우리는 한국의 중국선교가 적신호적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과 이제 '정지'하여 정비·점검을 해야 할 시점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적 시각혼란

이런 '외부적인 적신호의 알림'에서 중국선교의 문제를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중국선교 관심자들 내부에도 시각상의 혼란이 있다. 최근 중국을 자유로이, 빈번하게 왕래하게 됨에 따라 여러 교회인사가 여러 경로로 중국을 다녀온 후 '선교여행보고'라는 명칭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그 見聞을 소개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혼란'과 '시각차이'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비전문가의 전문가적 발언이 가져다 준 문제이다.

예를 들면 ○○○ 목사께서 짧은 10일 동안 삼자교회, 신학교, 삼자측 인사만 방문하고 돌아와

서 "...중국을 방문한 자 중에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말하는데 현재 지하교회는 없음을 보았다. 소위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하교회로 오해된 듯하다..." 라고 하였다. 물론 '지하교회'라는 명칭사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 목사의 이런 말씀은 삼자회 소속의 약 2만의 집회처만이 가정교회이며, 그 밖에 삼자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없으려는 전국각지의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거나, 알고서도 무시해버리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또 "현재 지하교회는 없음을 보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사람이 말해왔던 지하교회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여기서 ○○○ 목사는 개인의 경험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우스운 일은 그의 여행 행적이 단지 삼자신학교와 삼자교회에 국한된 상황에서 "지하교회는 없음을 보았다"라 했으니 말에 어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목사의 발언은 그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는 데에 그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 그의 발언은 중국선교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여기서 말대두고 싶은 것은 소위 '중국선교여행 보고' 라는 제목 아래 행해지는 강연, 글이 너무 쉽게 중국교회의 전모를 말하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식의 매우 경솔한 행동이며 자기과시적 교만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바로 이상과 같은 외부적 적신호와 내부적 시각혼란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방향의 활로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중국선교에 있어 기본태도와 인식

한국교회가 중국선교하는 데는 몇 가지 기본적인 태도와 인식이 요청된다. 첫째 중국선교는 유행과 시류를 따라가는 일시적 선교행위가 아니라 지상의 명령 수행으로서의 항구적 지속사업이다. 이런 모습은 각 교회와 개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떤 교회는 "중국선교가 어렵기에 필리핀 선교로 돌리자", 또는 "중국선교보다 현재 개혁·개방이 활발한 소련에 대해 선교하자"라고 외치고 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교회도 선교하는데 우리교회도 선교해야지 다들 선교하는데 우리도 선교를 안할 수 있나" 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또 어느 중국선교에 소명받았다는 이가 "중국선교는 어려운 중국어를 배워야 하고 또 선교적 여건도 좋지 않아 최근 아르헨티나 선교로 돌렸다"고 하여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둘째, 중국선교를 단시일내로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겠다. 선교에서 "빨리, 빨리"라는 말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선교는 더욱더 "빨리, 빨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단기선교도 중요하나 중국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선교는 장기선교이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한다.

셋째, 중국선교를 하는 데 있어 중국교회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교회를 인식하는 데 있어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현상만 보고 본질을 파악하고 인식하려는 '현상주의'에 빠져들지 말자.
2.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여 경험 밖의 것에 대해 도외시하려는 '주관적 경험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3. 중국의 소식과 정보는 시간성이 있어 끊임없이 변화된 이해가 요청되기에 '주지주의'(主知主義)적 독단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4. 중국의 지역적·인종적 포괄성을 잘 이해하여 '침소봉대'(針小棒大)가 되기 쉬운 '개연주의'(概然主義)에 현혹되서는 안된다.

또 세부적으로 중국교회에 대한 인식 가운데

몇 가지 혼동되어서는 안되며 정확성을 기해야 할 점이 있다.

1. 삼자회의 시작과 결성은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그 정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국의 1920년대 본색화운동(本色化運動, 즉 토착화운동)의 자립운동과 유기적·연사적 유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삼자회측은 이 점에서 여러 관계를 호도시키고 있다.
2. 삼자회의 중심과제는 사회주의 신중국 건설에 기독교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있지 복음전도·제자양성을 통한 하나님나라의 건설확장에 있지 않다.
3. 삼자회의 정책인 삼자정책은 '철저한 배타성', 삼정정책은 '철저한 독자성', 삼호정책은 '철저한 주권성'을 의미, 지향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 삼자회와 삼자교회와의 관계맺음에 있어 삼자교회는 철저하게 '우호평등적 교류'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5. 가정교회라 할 때 우리는 삼자회에 소속된 집회처(Meeting Point)와 소속되지 않고,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교회가 있음을 구별하여야 한다. 삼자회에 소속된(등록된) 집회처는 약 2만 개가 있으며 그 밖의 가정교회는 통계하기 어려울 만큼 그 수가 많다.
6. '지하교회' 명칭문제에 있어 과거 문화 대혁명시기에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었기에 '지하교회'라 칭해졌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래 이런 '지하교회'가 반양성(半陽性)으로 드러났으며 또는 여전히 음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삼자회에 등록하고 있는 교회와 등록을 하지 않은 교회로 분류할 수가 있다. 현재의 문제는 바로 삼자측에서 '지하'라는 말을 싫어하고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있는 존재로 규정하기에 소위 '지하교회'명칭의 사용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지하교회'의 이름을 '가정교회'라 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만 사용자 사용자가 반드시 삼자소속의 집회처와 구별해야 한다.

7. 가정교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우리는 지역성·인종성·시간성·정치성을 고려해 이해해야하며 접촉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성과 자제를 기해야 한다.

맺는말

현재 한국의 중국선교는 여러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발걸음이 더디어 있는 상황이며, 이는 선교를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또 이런 어려움과 문제는 진실되게 중국선교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도 밝혀지는 기회라 말할 수 있다.

중국선교는 실제적이여야 하며 또 한결같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반드시 보게 하시고 또 일어서라 하시며 가라고 하신다.(렘 1-2장). 중국선교를 하는 데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하며, 잘 보아야 한다. 잘못 볼 때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일어서야 한다. 일어서는 것은 준비되었음을 전제로 하며 준비된 자만이 일어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다. 누가 지금 갈 수 있는가? 사실 중국은 많은 사람을 부르고 있고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다. 잘 보고 잘 일어난 자만이 잘 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중국선교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여러 시행착오와 좌절을 통해 걸음마 단계에서 자유도보(自由徒步)의 단계로 갈 수 있다. 일련의 적색신포와 문제점들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가리라 믿는다. ◆

방지일 목사님과 함께

방지일 목사님은 본선교회의 고문으로서 8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젊은이 못지 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교계 원로 목사님이다. 일찍이 중국 청도에서 다년 간 선교사역에 봉역하였으며 총회산하 선교부에서 선교부사역을 십수년 간 관여하시는 등 해외선교 특히 중국 대륙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랄 수 있다. 지금도 본선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선교단체의 선교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

본선교회 기자는 9월 어느 날 이른 시각에 목사님의 귀한 시간을 약속받아 자택인 여의도 진주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저희가 목사님을 찾아 뵈는 것은 신문이 보도했듯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해 중국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 한국정부가 한국교회에 선교에 대한 자제요청 공문을 발송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방목사: 예... 사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니나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지나치게 들뜬 상태에서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실

제적 사역, Practical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중국정부는 사실상 선교활동을 싫어하나, 그들의 현실적 이해가 깔려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이 더욱 개방되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중국내에는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동북부에 위치한 우리 조선족은 인구 200만밖에는 안되나 고유한 문자, 높은 문화를 지닌 우수한 소수민족입니다. 이들 소수민족은 한족보다는 비교적 종교생활이 자유롭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족 교포에게 선교한다 해도 만만히 볼 수 없는 것은 그 중에 골수 공산주의자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내가 듣고 보는 바로는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한다고 무작정 떠벌리고 다니면서 실속없이 돈을 뿌리거나 앓나 염려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중국현지에서는 「중국선교」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중국선교합내 하고 관망행식으로 둘러본 뒤 중국선교를 다녀왔다고 하며 돈을 낭비한다든가, 중국교포가 교회를 세운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손쉽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귀한 현금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일입니다. 목회자나 교인 다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몇 사람 중국선교를 하는 분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이제 이런 점에 대해 무언가 차차 깨닫는 듯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중국정부는 특히 아시안계 임 이래로 한국교회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을 눈으로 보면서 교회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포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방목사: 현재 중국내 조선족 교회 특히 지하교회에는 교역자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므로 여기 나와서 그들이 훈련받고 돌아가 설교자로서 인도할 분들이 생긴다면 좋은 일이며, 현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중국에서 가까운 사이판에 갔을 때 역설했던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곳에는 수천의 중국대륙 처녀들이 3년 계약으로 와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다시 전도자로 중국에 파송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너무 미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제 막 믿고 난 처녀들에게 돌아가서 만사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해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께 작정도 하고 해서 귀국해서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곳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닌데... 이렇게 될 때 저들은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죄짓는 듯한 심정으로 이종교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어 새 삶을 살게 된 데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은밀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격려할 수 있어야지,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의 교포선교도 교훈삼았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곳저곳에서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반갑



고 기쁠 수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예요.

기자: 우리가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교포선교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방목사: 먼저 방한중국교포선교를 할 때 그들은 대개 돈 버는 데 정신이 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 택해 가정교회의 일꾼으로 키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들을 과도히 대접하고 해서 의존성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선교를 생각해 볼 때 오늘과 같이 대비가 없다면 앞으로 큰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나도 살아 보아서 알지만 중국인처럼 자부심이 높은 민족도 없다고 봐요. 미국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또는 영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식으로 고자세로, 나누어 준다는 식으로 또는 미개인을 개화시킨다는 자세로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중국인은 높은 문화를 지닌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한데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내세우려는 생각이 없어져야 합니다. 또 그들의 민족성을 연구하면서 준비해야 하며 오지의 소수 민족 연구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국내의 삼자교회와 지하교회 양편을 공평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알기는 현재 양교회의 갈등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교회는 삼자교회를 가짜라고 알고 불신하며 삼자교회는 지하교회를 독선주의라고 몰아붙입니다. 현재의 삼자교회의 교인들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긴 안목으로 보면 이들 양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편으로만 치우쳐 상대한다면 갈등만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항상 중국내의 정치적 변동을 염두에 두고 생각없는 선교를 할 것이 아니요 준비하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자: 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방목사: 중국인들의 문화나 역사, 사회 및 그들의 민족성을 잘 알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은 공자의 형식에 길들여진 민족이라 형식이 많아서 그들이 대답하는 '好'가 다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중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점을 그다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겉보기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이 너무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기자: 중국선교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방목사: 지금 현시점에서는 직접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심지어 등소평이 말하기를 중국에 몰래 들어와 선교활동하는 자들이 150명이나 되는데 발각되는 즉시 추방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보망이 엄격 있으니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어나 역사, 문화를 익히는 등 기본적인 준비를 해 나가면서 차츰 어느 지역에 누구를 파송하겠는가가 구체화되어 갈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찬송, 설교카세트나 방송매체를 통한 선교와 또 일반성도의 자연스러운 진출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기자: 좀 화제를 바꾸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목사님은 어떻게 중국선교를 하시게 되셨나요?

방목사: 나의 아버님도 목사셨지요 일제 때 총회에서 중국 청도로 파송되어 가실 때 함께 가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는 중국에 반일, 항일 기운이 높아서 일본의 속국인으로서 선교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개척했던 교회가 36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 건물만 남았을 겁니다. 그때의 교회 분위기가 아마 지금의 지하교회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목사님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려는 한국교회나 선교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목사: 중국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높은 문화수준을 역사로 간직한 대국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공자보다도 더 두터운 예절을 갖추어 겸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상대가 어느 면에서나 나보다 낮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언제나 그 장점을 배우겠다는 태도로 복음을 겸손히 전한다면 성공할 것이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준다, 위에서 주니 받아들이라는 식의 수동적 예측적 신앙을 전파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일이야말로 선교의 대원칙입니다.

기자: 중국의 완전개방은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보시는지요?

방목사: 멀지 않은 장래일 것입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내가 호주에 갔을 때 2만 명의 반정부 중국인학생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 해외 여러 곳에도 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중국을 비난하고 나서고 중국 국내적으로는 말은 안해도 기회를 노리는 더 많은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등소평이 자기가 밀어낸 모택동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강경노선으로 회귀한다고는 하나 오래지 않아 국내외적 여건으로 열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기자: 요즘 한국의 선교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방목사: 요즘 선교부를 타고 선교회가 난립되는 것 같아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선교한다니 좋기야 좋지만, 17년 간 총회선교부에서 일해 본 나로서는 많은 선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고 계속 후원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웬지 선교육만 앞세우는 게 아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기야 좋게 보면 요즘과 같은 선교회 난립 현상은 과도기적인 일이니 차차 정비가 되겠죠.

기자: 말씀 나오신 김에 중국어문선교회에 하시고 싶은 당부가 있으시다면 . . .

방목사: 내가 보니 회지의 내용이 알찬 것 같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연구 방면에 힘쓰고, 부끄러움 없는 내실 선교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너무 이상적이며 고답적입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겸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 회원들도 동일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부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한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3년 동안 6만 불을 투자해서 겨우 세례교인 셋을 얻었습니다. 그래 후원자들이 말하기를 그

돈 가지면 한국에서 개척교회 몇십 개는 세우겠다고 실망하며 후원을 그만두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세 천하를 얻었구만 뭘 아까와하는가? 했습니다. 이런 물량적 계산 방법을 버리고 복음에 빛진 자가 빛 갠 심정으로 꾸준히 후원해야 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가 기왕에 어려운 일을 시작했으니 회원들은 믿고 기도하며 꾸준히 회비로 후원을 계속해야 열매를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당장에 따먹겠다는 식으로는 무슨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저기 다른 선교회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견을 버리고 먼 장래를 바라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끝으로 목사님의 가족과 근황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목사: 여섯 아이 중 둘은 나보다 앞세우고 미국에 둘 보내고 둘은 국내에 있는데, 현재 조카 딸 하나가 내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79년 은퇴한 후 11년 동안 쪽 책을 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성경강해가 다 완성되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나올 책 원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매주일마다는 설교요청이 거의 끊이지 않고 있어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외국순방도 다녀오지요.

기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의 건강에는 지장이 없으신지요?

방목사: 다리관절염으로 약을 먹고는 있으나 그만하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겠죠.

기자: 목사님 이처럼 바쁜 틈을 내주시고 오랜 시간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방목사: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

문화배경과 선교

송창기 교수(국민대 중문과)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짧은 33년의 생애 동안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마음 속에 농부가 밭에 파종하듯 씨를 뿌리시고 뿌리를 내려 하나님 성품을 닮은 싹이 나고 자라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다. 밭에 떨어진 씨가 썩어질 씨여서는 결실할 수 없을 것이요 밭 또한 잘 일구어진 옥토가 아니고는 싹을 낼 수 없음은 물론이다. 현명한 농부는 이 들해 파종할 종자를 소중하게 가려서 보관하다 뿌리는 것이요 밭은 갈고 다지고 거름하여 기름진 전답으로 가꿀 것이다. 또한 파종 후에는 끊임 없이 돌보고 가꾸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생활을 즐길 것 또한 당연한 보상이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농사법을 들어 농경사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곧 누가복음 8장에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눅 8:4~8).” 하시니 씨뿌리는 방법

과 밭의 조건을 길,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구분하여 결과가 어떠함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나 쉬운 비유인 듯하나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바로 알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고 곧 이어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財利)와 일락(逸樂)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눅8:11~15).” 하시며 구체적으로 믿음 단계의 예를 들어 깨우치셨다. 서성거리는 길가의 초보단계 믿음에서 속마음에 믿음을 작정 못하고 건성으로 말씀을 듣고 현실적인 생각(곧 마귀의 생각)에 진 경우와 다음 단계는 바위처럼 굳게 믿겠다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으나 성경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아 믿음의 뿌리가 생기지 못했기에 시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진리에 배반하게 되는 경우이며 한걸음 더 나아간 가시떨기 단계로서 말씀을 듣고 현실 속에 실천하는 생활 중에 이생의 재물욕, 환락, 온갖 근심, 걱정 속에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경우이며 참으로

우리가 들어서야 할 단계는 좋은 땅으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한 성도의 생활인 것이며 인내로 좋은 보람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는 경지인 것이다. 우리는 위의 예에서 하나님 말씀은 곧 씨이며(눅8:11) 그 씨를 뿌리는 밭은 우리들 마음인 것을 거듭 깨닫게 된다. 마음밭을 어떻게 일구고 돌볼 것인가가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이다. 또한 씨를 뿌리는 파종은 전도인 것이요 밭을 일구고 가꾸는 일과 여건은 문화배경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배양되고 교화될 그것이 곧 문화요 그것은 옛부터 지금까지 줄곧 땅을 갈고 일구어져 육토가 되었던 그렇게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곳곳에 다른 특성을 지닌 문화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中國 大連市の 玉光街 禮拜堂)

오늘날 사상의 이념과 정치체제의 높았던 담이 무너지면서 동서가 장애없이 교류하게 됨에 다루어 전도에 앞장서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대륙 선교에서 벌써 적잖은 비판과 실패사례들이 전해지고 있음을 접할 때 이일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는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의 씨뿌리는 농부의 지혜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다. “너희는 나가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하신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가 우리의 지상과제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농부가 어떤 땅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파종하는가는 토질과 기후와 그 시기를 가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외국 선교에 있어 언어, 문화, 풍습, 정치, 경제 등 여건은 바로 위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무렵 어느 영국 공사 한 분이 베이징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전도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편지로 실토한 적이 있었다.

“어머님 저는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꼭 같이 행동했습니다. 말도 배우고 갖도 쓰고 담뱃대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와는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들일 수만 있다면 제 파란 눈을 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부색, 외모, 문화배경이 다른 것이 얼마나 전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인 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우리가 중국대륙을 선교함에는 그 어느 나라 사람들 보다 유리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의 단체여행까지도 당국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를 보면서 아직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빚어진 필연적인 것으로 그 이유를 돌리기에선 석연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함이다. 대륙여행이 어느정도 자유화되면서 적잖은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대륙에 가서 여러 경로로 선교활동을 비공식적으로나마 해 온 것으로 듣고 있다. 예술단을 이끌고 가 한편으로 공연하면서 거리, 공원에서 입을 옷에 예수님표시를 하고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는 물건에도 “예수님 믿으시오!” 문구를 새겨와 간접전도를 하기도 하고 거리의 약장수처럼 즉흥 공연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하다 그 곳 공안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교역자들은 그곳 우리 교포들을 통해 물질과 돈으로 환

심을 사고 신앙을 부탁하며 서로 공명심 경쟁을 하기도 했다고도 한다. 마치 6.25가 끝난 뒤 굶주린 이땅에 밀가루와 통조림상자, 헌옷가지 배급을 통해 교회 나오도록 한 미국 선교사들의 방법을 혹시 모방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한국에서 물려간 일부 물지각한 관광객들은 한약을 싹쓸이하고 달러를 호기있게 뿌리면서 가난한 교포와 중국인들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냈기에 그 곳 신문, 방송에서 「치졸한 졸부 남한인들의 추태」로 연일 비난을 받지 않았던가?... 교수 한달 월급이 50불이 안되는 그 곳에 가서 한 자리 수백 달러 주홍을 즐기는 한국인을 대하면서 그들은 입을 벌리고 부러운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국내는 시위와 비리 교통사고와 살인강도사건 등으로 불안하고 일부 상사들은 회사에서 신용을 잃어 도산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일부는 국가야 어떻게 되었든 해외에서 흥청망청 분수 모르고 날뛰는 꼴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당갑니다.” 할 때 이 모든것을 아는 저들이 이 복음의 말을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전통관념으로 지키고 실천해 온 그들에게修身齊家도 못하면서 근엄하게 平天下를 외치는 모순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나무라고 원망하겠는가?... 적어도 중국선교에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배경, 씨를 뿌릴 밭과 기후여건, 시기가 어떠한가 짚은 바로 알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황제(皇帝)는 그들 종족의 우상이요 왕제(王制)는 정치의 우상이며 도통(道統)은 윤리의 우상이며 경학(經學)은 학술의 우상으로 여겨온 중국인들의 전통바탕 위에서 접근하고 교류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체험시킬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 것은 물론이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독일에 가서 유명한 독일 신학자와 대화한 다음 일화는 선교에 큰 일깨움을 주는 바가 있다. 한국 목사님에

게 독일 신학자는 “귀국의 신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다. 한국의 목사님은 교회가 텅빈 독일에 비해 엄청 많은 신자수를 자랑이라도 하듯 “전국민의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믿는다고 할 24% 이상 됩니다.” 하고 호기있게 대답하였다. 그런데 독일 신학자는 대견해 하지 않고 자못 미심쩍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국 목사가 “못 믿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참다운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면 귀국에서 매일 그같은 사고와 시위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 사람 속에 참 크리스찬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단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되묻는 독일 신학자 앞에 한국 목사님은 얼굴이 발강게 상기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선교, 세계 인구 1/5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선교에 앞서 우리들의 마음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그 땅, 그 기후, 그 시기를 먼저 헤아리고 배우는 자세야말로 그 무엇보다 앞서는 준비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알리고 소개하며 언어를 교육하는 중국어문선교회의 사명이 막 중함을 되새겨 보게 된다. 곧 문익점 선생이 북통 속에 숨겨온 목화씨 하나가 이 땅 전국에 면화꽃을 피우고 부드럽게 따뜻한 내의를 입게 했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들 모두가 씨지 않을 복음의 씨가 되어 큰 땅 넓은 곳에 뿌리내릴 수 있어야겠다. 그러한 씨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은 씨임을 기억하고 성서를 통해 씨지 않을 씨가 되기 위한 방법을 되새겨본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둔 난 것이 씨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씨지 아니 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2하~25).” ◆

중국선교와 중국선교사명자(Ⅱ)

유소충 목사 (영등포중화교회)



지난 호에서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靈적인 측면과 文化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호에서는 宣敎役事의 시대적 흐름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宣敎役事は 生命적인 일이며 未來指向적인 일이다. 오늘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未來를 創造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反省 및 檢討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中國宣敎史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고, 效果적인 宣敎를 하여야 한다.

1. 中國宣敎史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기에서 필자는 中國宣敎의 歷史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으나 歷史 속에 나타난 基督敎宣敎에 대한 反應과 結果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라고 밝혀두고 싶다.

먼저 唐의 景敎史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唐의 景敎가 AD 635년에 傳入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놀랄 만하다. 그러나 傳入時期에 비해서 佈敎率과 效果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宣敎使節들은 평민위주의 선교형식을 취하는 것보다 宮廷宣敎形式을 취하였던 것을 歷史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에 皇室의 변화는 곧 宣敎役事의 변화라 할 수 있다. 唐太宗이 敎僧(宣敎師)들을 환대하여 포용하였으나 武宗은 그 반대로 敎僧들을 핍박하고 선교를 不許하였던 것을 본다. 그리하여 선교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선

교 歷史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예수그리스도는 萬民의 主이시기에 우리는 景敎의 中國宣敎 600년 동안의 선교범위를 볼 때, 民衆信仰이 되도록 폭넓은 役事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 한편으로는 기타 종교로부터 구별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 하겠다. 예를 들어 본다면 景敎碑文에 나타난 슬어들은 대부분 儒敎, 道敎, 佛敎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다. 佛經으로부터 차용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上帝를 “佛”로 또는 “天尊”으로, 宣敎師를 “大秦僧”으로, 경전을 “尊經” 등으로 그 외에 많은 용어들이 불교용어와 혼합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中國宣敎使命者들에게 적지않은 歷史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즉 ‘政’指導‘敎’가 되면 언제나 福音은 損失을 면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된다. ‘敎’指導‘政’의 바른 위치에서 우리는 宣敎해야 할 것이다. 영향을 주는 종교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 영향을 주지 못하면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役事方向이요 中國宣敎의 기도제목인 것이다. 지금 현재 中國은 ‘政’이 ‘敎’를 다스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급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혜롭게 행동하여야 할 것이며,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세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元朝의 天主教 中國宣敎의 예를 들어 교훈을 삼아 보기로 하자.

元の天主教 中國宣敎를 통해 볼 때에 敎皇廳의 權威主義적인 처신이 中國인들에게 反感을 사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中國人들은 中華思想이 강한 民族이요, 道德적인 民族이기에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압도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中國宣敎는 겸손하여 종의 자리에 내려가 섬기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은 분명한 歷史적 敎훈이다.

또 하나는 基督教의 中國宣敎에 있어서 많은 敎難을 일으키고 수많은 宣敎師가 순교당하고, 심지어 改新敎를 帝國主義의 侵略 도구로까지 오해하고 비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선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을 주지 않게 되고, 접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外部적인 要素로 말미암아 靈적인 生命의 役事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아쉬움은 있으나 아무쪼록 20세기의 宣敎役事 현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歷史적인 사건들을 잘 분석하고 선교의 장애된 것을 제거하고 더 效果적인 宣敎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權威主義를 버리고 순수한 福音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조성하여 능력을 통해 宣敎役事를 展開해야 할 것이다.

2. 선교사의 자질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宣敎는 한마디로 傳導보다 몇 배 어려운 것이다. 용어학적인 문제는 있겠으나 필자는 他國民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自國民에게 전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의미에서 “선교”와 “전도”로 구분할 뿐이다. 그러기에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훌륭한 牧會者가 되어야 한다. 牧會경험과 靈力을 통해서 이 힘든 役事를 전개해야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능력을 받고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내시면 안 갈 수 없고, 안 보내시면 간다고 서둘러 나서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이다.

3.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관념 개선

중국선교를 하려면 먼저 관념의 돌파가 필요하다. 자기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어느 교단 목사이다. 그런 고로 本色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근래에 각 교단마다 中國宣敎機關이 組織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現在 中國의 敎會形態는 “派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三自”와 “家庭敎會” 또는 其他의 外形적 差異는 있으나, 한마디로 “基督教”로 表現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중국선교기구는 초교파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선교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이들이 중국선교를 추진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제이, 제삼의 실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宣敎한다는 열의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반드시 中國宣敎에 效果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장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 시례로는 근래에 중국당국이 문화부로 보내온 공식 협조요청 서한을 보아도 지금까지의 宣敎活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교단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

할 이야기는 많으나 다음 호로 미루고 한 가지만 논하고 마치기로 하자.

中國宣敎에 있어서 내가 가서 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물론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내가 가서 내가 役事한다는 범주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중국선교는 내가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현 지인들에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본다. 그리하여 훈련된 어부들로 하여금 중국대륙의 廣闊한 황금어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국교회의 상황과 실태

박화목 목사

1807년 중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 중국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나라였다. 당시 청나라의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내륙 지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1934년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고 죽을 때까지 중국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때인 1842년에, 또 18년 후인 1860년에는 북경조약을 통해서 중국 전지역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I. 중국기독교 정책의 분석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정부는 계속적으로 안정과 단결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당국은 경제건설과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종교 역시 의식 형태의 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교회와 해외 중국선교기관이나 교회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거대한 압력과 도전에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후 종교 활동이 회복되어 신도들이 증가하자 당국에서는 종교활동 수칙이나 규정들을 많이 제정하였다. 중국정부의 기독교정책은 장기 소멸주의 정책으로서, 외국종교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적대세력의 침투로 결론짓고 철저히 제지하려는 것

이다. 그들은 겉으로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사회주의의 경제·문화·과학기술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중국 건설을 꾀하려 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종교문제 해결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본적인 구상이다. 결국 종교의 소재를 사회의 근원과 인식의 근원에서 차츰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그들은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종교적 침투라고 여기기보다는 정치적 침투로 이해하며 특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정치적 스파이로 규정하고 추방조치한다.

II. 중국교회의 상황

(1) 성경과 신앙서적의 부족

1949년의 공산화 이후 40년 동안 중국내의 성도수는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개방으로 성도수는 급속히 증가했으나 이에 비해 성경과 신앙서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전도할 때 쪽복음성경이 많이 필요하고 그들의 지도자에게는 영적성장을 위한 신앙서적이 필요하다.

(2) 중국지도자의 부족

13개의 국가 신학교에 신학생은 734명인 것으로 발표되어 있다. 더구나 이들은 그 가르침이

비성서적인 부분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라도, 전적으로 삼자교회를 담임하게 되므로 성도들에게는 지도자가 절실히 요청된다. 결국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을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가정교회의 실정은 어떠한 상황인가?

① 공산화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투옥되거나 순교했고, 연로해진 탓으로 지도자의 부족이 심각하다.

② 가정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순회전도자들 대부분이 정규의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③ 개방 이후 가정교회가 증가하면서 이단의 활동도 급증하여 이에 연루된 교회가 세워져 신앙에 혼란을 주고 있다.

④ 삼자교회내에도 훌륭한 성도들이 많지만 삼자교회는 중국정부의 관할하에 놓여 있어서, 대외적으로 정부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선전하며 또 정부시책에 따라 가정교회를 제재, 감독하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자교회와 노선을 같이 하지 않는 전도인과 성도들이 여전히 핍박과 감금대상이 되어 있다.

Ⅲ. 현재까지의 중국선교의 문제점

기독교 안에서 풍부한 사랑도 시행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여 거대할 수 있는 만큼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선교의 문제점이라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선교의 무계획성

활동상 제한이 많은 곳인 중국에서 자신의 활동이 노출되어 쌍방간에 조사 대상이 되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선교사역에 앞서 중국



(중국 하얼빈시 기독교회)

의 정치·경제·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것이며 설교자로 나서 주기를 요청받는 때에도 절제와 신중함을 가져야겠다.

(2) 교회를 세우고 근거지를 확보하려는 경향

중국에 선교하는 데 한국교회에서 제일 관심을 쏟는 일은 우선적으로 자기(교단, 선교회에 속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 그 곳을 근거지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해외세력이 중국안에 이렇게 조직을 들여오려는 것을 문제시하고 견제하려 하고 있다.

(3) 물질위주로 하는 선교

한국교회의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 또는 개인이 중국에 들어가서 과도히 물질을 뿌리는 일이 중국교회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구심이 일어나던 터에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물질로 인해 생긴 분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중국선교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는 사역자와 교회들은 언제까지나 그들을 돕는 진정한 협력자가 되어 그들 곁에서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4) 해외교회의 조직방법을 무조건 대륙교회에 이식시키려 함

해외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후원을 베푸는 데 있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교회형태를 주장하여, 가정교회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장로, 집사를 세우도록 강조하며 질서있는 집회순서를 요구하는 등의 처사는 삼가해야 되겠다.

(5) 신증하지 못한 언어 사용

우리의 생활면이나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과도하게 자랑함으로써 듣는 그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위주의 신증치 못한 비판발언 또는 지키지 못할 약속 등을 쉽게 함으로써 서로간에 감정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나누거나 사적인 교제를 가질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6) 조선족 위주의 선교활동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과 언어상의 장애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중국선교를 하는 데 오로지 조선족을 선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여 신앙을 갖게 되는 중국교포들을 통해 헌금을 보내며 선교의 교두보를 삼으려는 일이나 아직껏 성숙되지 않은 그들의 신앙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교적 위임을 주어 중국선교사로서 파송

하는 일 등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다.

Ⅳ. 올바른 중국선교방법

중국선교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는 사역자와 교회들은 언제까지나 그들을 돕는 진정한 협력자가 되어 그들 곁에서 힘써야 할 것이다.

(1) 장기 선교계획을 세워야 한다

1차적 예비답사와 인적교류, 2차적 전지훈련과 사역자 인선, 그 후 소양교육·제자훈련 등 훈련과 진행의 단계가 필요하다.

(2) 전통적 선교방식을 버려야 한다

① 선교용어를 바꾸어서 사용: 우리가 선교나 기도, 편지할 때 침투·전도특공대·복음으로 중국 정복·선교기지 확보·전략 등의 용어 사용을 금하고 전략 - 방법, 기도 - 관심, 서적 - 샘플, 교회 - 회사 등으로 비유해서 전달함으로써 오해를 최대한 막아야겠다.

② 조용히 하는 선교: 떠들석하게 선교활동하다가 그르치는 일이 많은데, 선교자의 조심성 없는 중국내 활동이나 국내 신문의 중국성도에 관한 기사마저도 중국성도 본인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지혜롭게 조용한 선교를 해야겠다.

③ 지도자용 성경교재 제작: 문화적인 언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더구나 단기간 다니며 선교해야 하는 여건상 급히 그곳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어휘에 맞추어 성경공부용 교재, 자료 등을 편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중국전통문화의 특징

문석윤 (중앙대 강사)

I. 범 위

잘 알다시피 중국은 광대한 나라요 또 많은 문화적인 전통을 지닌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힘든 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국이라 할 때 한족의 범의로 좁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줄곧 중국을 지배해 왔던 민족이 한족이었고(물론 이방 민족에게 중원을 빼앗긴 적도 있지만), 또 한족을 중심으로 각 민족이 모여서 이룩된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문화와 그 전통을 이야기한다면 자연 한족의 그것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I. 역사적 개관

중국전통문화의 특징을 다음 7가지의 역사단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전설시대

통상 말하는 三皇五帝의 시대로서 실제적인 역사 시대는 아니다.

2. 夏殷周 三代

夏왕조는 역사적인 실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때가 실제적인 중국문명이 형성된 시기로 '上帝의 시대'라고 할 만하며 뒤이은 殷 왕조가 이上帝의 문명을 꽃피웠다고 하면 周 왕조는 한걸음 더 나간 天의 文明이라 부를 수 있다.上帝란 인격적인 실재인 최고신이며 인간의 전반적인 삶을 주재하는 신으로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 '天'은 '天命'으로서 앞서의上帝가 지닌 인격성 종교성과는 또 다른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天命이란 군주가 지닌 도덕적 정당성 즉 德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殷의 文化가上帝의 文化, 종교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周의 문화는 인간의 덕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문화 즉 인문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周의 文化가 곧바로 공자의 유가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3. 春秋戰國시대

이 시기는 百家爭名의 시대 즉 儒家, 墨家, 法家, 道家 등 여러 사상적 주장들이 다투어 일어났던 때이다. 공자가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나 周代文化를 숭상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4. 秦漢統一시대

이전의 법가, 도가적인 요소와 음양가 등 제자백가의 학설이 유교를 중심으로 종합정리되었던 시기이다. 유교적 사회란 곧 士大夫의 사회로서 사대부란 지식인, 관료, 지주의 3가지 성격을 겸비한 계층으로 당시 중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5. 魏晉南北朝시대

불교가 실질적으로 중국인에게 이해되고 경전이 번역되어 그들의 중요한 세계관으로 인정되었으며 도교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역사적 사실로는 한족이 중원을 잃고 남쪽지대로 옮겨와서 토대를 잡게 되었다.

6. 唐宋시대

불교, 도교의 등장으로 유교에서 떠나 불교, 도교적 교양을 갖춘 인물들이 나타나 수·당까지 이어지다가 宋代에 이르러 이에 대한 반동으로 신유학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신유학이란 불교와 도교를 유가적 세계관 속에

종합한 사상으로서 주자와 육상산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7. 明清시대

앞서 말한 신유학이 송대에 주자학이란 명칭으로 자리잡고 이것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明代에는 陽明學 清代에는 考證學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중국문화가 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는데 굴곡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유가적 특성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근대 서구세계와 만나게 된다.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의화단사건 1911년 신해혁명·5.4운동을 거치면서 중국과 근대 서구세계와의 만남은 줄곧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중국전통문화를 다루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전통이 이미 끝나버리고, 중국이 그와 단절된 새로운 다른 세계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전통문화와 근대서구세계와의 만남의 연속선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III. 구조

형적으로 잘라보면, 중국문화는 결국 유교를 중심으로 도교와 불교를 내부에 흡수하면서 병존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IV. 특징

중국전통문화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개인의 내면적인 완성을 중시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爲己之學과 爲人之學을 중시해 왔다. 여기서 爲己之學이란, 학문을 다른 목적에서가 아닌 자기 완성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공부가 취직을 위한 것이거나 진리탐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爲人之學이란 내가 선행을 하되 그 이유가 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면 남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기반이 되는 것이 성선론인데 이것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기완성의 극치가 성인이고, 신유학적 전통에서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강한 정서가 있다

고 말한다. 성인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인물이 아니라 전체사회와 더 나아가 전 우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서 누구나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 성인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모두 창조되었다. 그러나 모두 타락하였다. 그러나 모두 구원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유교에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으며 구원 후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족을 중시한다.

「맹자」에 보면 「親親, 仁民, 愛物」이란 말이 있는데 爲己에서 사회적으로 한걸음을 더 내디디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親親은 가족이기주의로 넘어가기가 쉬우나 유가의 원래 입장은 가족이기주의가 아니고 神이 지닌 도덕성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덕성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이것은 작위나 강제성이 배제된 바로 爲己의 연장이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親親이라는 도리, 가족의 도리로 넘어가 이를 고리로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성의 차원에까지 이르게 된다.

좀더 설명하자면 가까운 사람은 더 가깝게 대하기 마련이요, 자기 가족보다 남이 더 사랑스럽지 않다는 자연스러운 발상에서, 문제는 이런 생각을 확대해서 仁民하고 愛物하는 데 이르는 확장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맹자는 이 점에 있어 목자를 통렬히 비판했다. 목자의 견에는 종종 기독교적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오해받기도 하는데 맹자는 이에 대하여 無父(아버지가 없음)의 가르침이며 親親에 어긋난다고 통박했다.

3. 사회적인 책임의식과 정치적 관심이 높다. 爲己에서부터 출발해 內聖外王(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왕의 덕을 갖추는)의 이론이 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인 관료들의 철학이다. 또 『大學』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은

개인도 본질상 사회와 분리되지 않으며 자기완성의 실천은 곧 사회적인 실천이요 이는 전체 사회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天人合一의 사상

육상산은 내 마음이 우주라고 말했는데 '宇'란 공간 즉 上下四方을 말하고 '宙'란 시간 즉 古今往來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마음 속에 전공간과 역사적 전시간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 하나가 제대로 되면 전우주가 제대로 되고 자기 마음 하나가 이그러지면 전우주가 이그러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자연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의 가치 실현행위는 자기 실현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우주적 차원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周易) (무릇 대인이라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천지의 생명력과 함께하고 일월과 밝기를 합하며 사시와 차례를 합하고 귀신과 그 길흉을 합한다.) 라는 말에서 보면 전체 우주가 하나의 생명유지체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하여 생명의 활력을 강조했다.

이들은 자기 몸 안의 구성원이 아닌, 몸 밖에 있어 전체적인 통일을 주는 어떤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가 이해하는 것처럼 삼위일체와 같이 통합된 하나님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같이 분리된 하나님의 두 모습이 있다고 할 때 중국전통문화신상에 있는 중국인이라면 이 분리된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삼위일체의 통합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니 이런 점에서 이것은 그들에게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현실지향적이며 상식세계를 존중하는 세계관 중국인은 죽음이나 초월보다는 삶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이며 부정보다는 긍정, 절망보다는 희망을 택하는 지극히 현실지향적이며 상식세계를 존중하는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겪게 된 전체적인 타락과 전체적인 절망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큰 충격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국인은 근대사에서 서구와의 접촉을 통해 큰 절망을 경험했고 현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며 중국인이 근대에 서구와의 접촉에서 느낀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첫번째 과제이며 이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중국인에게 어떻게 분리된 하나님, 곧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인가가 그 두번째 과제이다.

6. 효용주의와 다원적 실용주의

중국인의 논리에서 전체적인 통일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이론적인 틀 중 하나가 '體用一元'(체와 용이 분리되지 않는다.)인데 이 논리는 쓰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근대사에서 그들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론이 '中體西用'인데 體란 유교의 전통, 用은 서구의 발달된 문명(제도, 기술)으로서 중심적인 유교의 전통을 바꾸지 않고 用의 차원에서 서구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흡수하겠다는 논리이다. 만약 기독교가 중국인의 절망을 진정으로 치유해 줄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도전을 用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과감히 體에 대해서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V. 제 안

따라서 우리에게는 妙合(두가지가 교묘히 합해지는 것) 즉 '二而一, 一而二'(2가지인 것 같으나 하나이고 하나인 것 같으나 2가지이다.)의 지혜가 필요하다. 기독교와 중국문화는 둘이지만 하나로 될 수 있고 하나이지만 결코 같아질 수 없는 둘이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기독교는 중국 화해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 중국을 기독교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질병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이 진정 새로운 생명을 지닌 중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用이나 외곽의 단순한 문화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우리가 힘써야 할 중심과제라 믿는다. ◆

전국양회 제2차 회의에서 본 미래 삼자회의 발전

陳敬誠

(연구부 제공)

90년대 기독교양회와 종교정책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국내 종교상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의할 만하다. 본문은 관련 상황에 대하여 요점을 보도하고 분석한 글이다. ————— 編者

1. 들어가는 말

1990년 8월 하순 전국양회(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상무위원회는 상해에서 제2차전체회의(확대)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 전국기독교협회 부회장 심이번(沈以藩)이 대표로 상위(상무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읽었는데 내용은 과거 4년 간 양회가 얻은 성과를 회고하고 현재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제기 및 장래의 임무에 대한 것 등, 주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점은 안정과 단결이라는 대전제하에 그는 국제 적대세력이 바로 종교를 이용해서 침투와 파괴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폭로와 저지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하였다.¹⁾

국무원 종교사무국 부국장 완요빈(宛耀賓) 또한 회의에서의 담화를 통해 동일한 노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것으로는 국외 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조국통일과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안정은 여전히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기본이익이 되는 일이다. 종교문제의 처리와 종교자유정책의 관철은 모두 안정에 기초하여야 한다.²⁾ 모든 것을 안정이라는 잣대로 저울질하는 종교신앙자유라면 종교정책은 어떻게 시행될 것이며 또 삼자와 기협의 장래 발전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 본문에서 상임위원회의 사업보고와 완요빈(宛耀賓)의 담화를 통해서 삼자회의 미래 2년 간의 발전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2. 안정과 단결- 국제 적대세력에 대한 강력한 저지

사업보고는 처음부터 89년의 6.4사건을 평가하여 「국제 적대세력의 지원하에」 발생한 일종의 「반혁명폭란」으로 목적은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보고는 계속하여 이 시기에 「기독교계가 경험한 흑독한 시련을 거쳤다」고 밝혔다.³⁾ 기독교계가 경험한 흑독한 시련은 무엇인가? 보고는 교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인 국제 반혁명세력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행하는 각종 침투활동으로 이것은 해외 적대세력이 우리에게 행한 「和平演變(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사회주의변혁;역주)전략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그 목적은 우리 나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 나라 교

1) 〈兩會常務委員會第二次全體委員(擴大)會議上的報告〉, 《天風》 1990. 11, p. 13

2) 宛耀賓: 「在中國基督教全國兩會委員會議上的講和」, 《天風》 1990. 11 p. 17-18

3) 주1) p. 10

회와 광대한 인민의 단결을 파괴하며 인민들을 선동하여 인민정부와 중국공산당을 원수시하려는 나쁜 음모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히 폭로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⁴⁾

보고는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적대세력이 책략과 방법을 바꾸어서 더욱 기독교를 이용하여 침투와 파괴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회내부의 단결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고는 또 한편으로 일부 교회들이 단결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 종파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3자 애국의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밖에 보고는 양회와 교회가 사업 중에 결점과 미비점이 있어서 해외 적대세력이 넘볼 여지를 남겨주었음을 지적하였다. 양회공작의 미비 점을 간단히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1) 최근에 국가의 개혁개방하에서 양회는 교회사업의 신속한 회복과 발전에 쉽게 만족하여 목회자와 자원사역자 및 광대한 신도에 대하여 비록 일정한 삼자애국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 작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느슨한 감이 있다.

(2) 각급 양회는 기관만 있고 신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신도의 사상감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으며 신도들의 정당한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3) 신도의 급증으로 정규신학교육을 받은 교역자의 부족이 심각했다. 신학교육과 자원사역자의 양육과정은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으며 문서사업방면에도 대단히 부족하였다.

(4) 적지않은 省, 市, 自治區의 양회가 이미 시행의 규칙들은 만들었으나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여전히 매우 보편적이다.⁵⁾

보고는 이상의 각 사항이 모두 양회나 교회가 부적절하게 처리했거나 부족된 점으로 해외 적대세력이 이런 상황을 틈타 침투와 파괴를 할만한 여지를 남겨주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몇 가지 측면은 양회가 가까운 장래에 시급히 개선하고 시행해야 할 임무로 여기게 되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삼자원칙의 고수와 원활한 교회업무 처리

보고는 교회는 이 단계에서 삼자애국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광대한 신도를 사회건설(四化建設: 사개항목의 현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말한다.)에 투입시키는 것, 교회의 자치·자양·자전(自治·自養·自傳은 三自原則:역주)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 교회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는 것, 당과 정부가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 실시하는 것에 협조하는 것, 홍콩·마카오·대만교회의 관계 및 국제연계의 계속추진 등 많은 시급한 임무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⁶⁾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정확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완요빈(宛耀賓)은 회의에서의 담화를 통해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은 바로 「종교를 믿는 사람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연합시켜 국가의 안정과 중국적 특성이 있는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함께 분투하게 하는 것이다.」⁷⁾라고 지적하였다.

완요빈(宛耀賓)은 종교신앙자유정책이 변함이 없고 장기적인 종교정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 기독교와 관련된 몇 개항의 의견과 건의를 열거하였는데 분명한 양회의 장래 동향을 잘 예시해 주고 있다.

(1) 애국주의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흔들림

4) 同上 p.13

5) 同上 p.13~14

6) 同上p.14~16

7) 註2) p.18

이 없이 삼자원칙을 고수한다.

(2) 양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삼자원칙에 따라 교회업무를 잘 처리한다.

(3) 연합을 유지하며 협력을 강화하며 기독교내부의 단결을 가일층 증진시킨다.

(4) 우호적인 대외왕래를 계속 시행하며 국제적대세력의 침투를 단호히 저지한다.⁸⁾

완요빈(宛耀賓)의 담화에서의 건의는 회의의 사업보고와 동일한 논조로 국제 적대세력의 종교방면에서의 침투가 끊임없이 진행되며 투쟁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것이어서 절대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반드시 단호하게 저지하여야 하며, 이 방면의 사업의 기초를 잘 닦는다는 것은 바로 국내의 종교문제를 잘 처리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내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모든 외국 적대세력이 침투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⁹⁾라고 말하고 있다.

4. 총결과 전망

이상의 면에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중국의 종교정책의 중점은 여전히 “안정”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요소는 모두 저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이른바 “해외 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행하는 침투와 파괴활동이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모든 “침투성 파괴활동”이나 “침투성 파괴활동”에 유리한 것은 반드시 제거되거나 저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독교삼자애국사상에 따른 계속적인 통전은 필연적이며 극히 중요한 일이다. 이 밖에 양회 및 교회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부응하여 변화되어야 하는데 목적은 모두 교회업무가 더욱 독립을 유지하고 해외 종교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삼자의 고수」는 바로 삼자애국주의의 길을 계속 견지하고 삼자애국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교회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삼자노선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自治: 중국인에 의한 교회사무의 처리; 역주)를 잘하고 자양(自養: 중국인에 의한 교회경비 조달; 역주)을 잘하며 자전(自傳: 중국인에 의한 전도; 역주)을 잘한다는 것이다. 전자를 보자면 신도를 통전케 하기 위해서 삼자애국의 선전교육이 반드시 강화될 것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외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양회와 교회내부에서 여러 반응이 있게 되리라 믿는다. 법규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규정이 있는 부분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집행하며 아직 규정이 없는 영역에서는 더욱 많은 규정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규정의 제정과 실시는 모두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더욱 많은 제약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교회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사역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활동공간도 역시 상응하여 감소할 것이다.

신도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회는 단결을 공고히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연계가 부족한 많은 신도에 대해서 사상적인 인도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¹⁰⁾ 이것은 삼자회가 많은 가정교회에 대해 설득과 흡수를 감행하리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삼자회에 가입을 원치 않는 많은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삼자회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양회의 처리를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교역자의 양성과 문서출판사역같은 신학교육과 문서사역의 영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보고는 적대세력의 문서를 이용한 침투활동과 각종 반동사조를 효과적

8) 同上 p. 18~19

9) 同上 p. 19

10) 註1) p. 15

으로 잘 저지하려면 반드시 중국적 특성이 있는 신학사상과 논의를 발전시켜야만 하며 아울러 각 신학원은 장차는 점차로 자전연구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

장래의 중국적 특성이 있는 신학사상의 발전은 여전히 미지의 요소이다. 그러나 중국관영소식통의 보도에 따르면 북경대학의 학자는 장차 체계적으로 마르크스사상에 반하는 서구의 학술저작을 잘 선별하여야 하는데 이유는 이런 서방학설들이 「이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심한 평가와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12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은 문화계가 이미 극도로 정비되었으며 이런 상황은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 같다. 13 문화사상이 포편적으로 압제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적 특성을 지닌 신학사상은 도대체 어떨 것인가? 그것은

신도들의 신학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삼자와 기협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 삼자는 금지될 수 없는 것임과 동시에 91년에 제5회 전국양회 소집을 결정하였는데 삼자의 장래 40년의 진로와 관계가 있게 될 것이다. 국무원 또한 금년에 착수를 보게 된 종교법 제정을 제기하였다. 장래의 일련의 종교회의와 종교관련법규의 제정은 모두 인민의 종교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교회의 장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중국에서 하루 속히 중국실정에 맞는 종교법이 반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중국이 주께로 돌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14

《守望中華》 제101기(1991. 3~4)에서

11) 同上 p.16

12) 원래는 《光明日報》 1991. 1. 31일자에 실렸던 기사인데 《明報》에서 1991. 2. 1일자에서 발췌하여 실었다.

13) 《明報》 1991. 11. 3



중국선교핸드북

조나단 차오 지음
중국어문선교회 편역

중국교회연구소 소장이며 중국선교의 최고 권위자인 홍콩의 조나단 차오 박사의 『The China Mission Hand Book』을 중국어문선교회가 완역하고, 여기에 중국어문선교회와 두란노서원이 중국선교에 관한 방대한 양의 최신 자료들을 부록으로 덧붙여 놓았다. 중국선교에 관한 한 최고, 최대의 자료집. 중국을 알려고 하거나 중국선교에 헌신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외로운 울림

(연구부 제공)

종교계 애국조직은 최근에 국가를 열렬히 사랑하자는 선전을 강화하고 해외 종교세력이 중국에 대해 행하는 화평연변을 타파하자고 소리를 높여 주장하였다. 종교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광훈의 담화(講和)만은 도리어 또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 編者

1990년 9월 6일 정광훈(기독교양회주석)은 중국정협위원의 신분으로 전국인대상위회의에서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의 내용은 주로 현재 당의 종교사무처리의 방법과 실태를 평가함과 아울러 《19호문건》에서 시작된 종교정책을 시행관철하기를 요구하였다. 정광훈은 4000자에 달하는 담화를 통해서 국내외의 많은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민족단결의 이해득실이라는 차원에서, 당과 군중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종교관리제도를 실시하지 말라고 역설하였다.

정광훈은 현재의 '모든 일을 붉은 색안경을 쓰고 보는(凡事左三分)'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종교를 통해 민족을 단결시키는 것이 모든 안정에 부합된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종교단체의 앞날을 위해 자유영역을 개척하기를 도모하면서 종교단체가 정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 상황하에서 자주독립적으로 종교사무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아래의 문장은 바로 정광훈의 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이번 담화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다시 19호문건을 들어 행정명령을 애써 거부하다.

문건은, 현재 당의 종교방면의 사무처리의 출발점과 입각점은 신도들의 신앙과 종교관습을 존중하여 그들과 광대한 군중들을 단결시켜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투신케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호문건》은 정부의 종교정책 실시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신도들을 조절하여 사회주의 중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며 민족단결과 중국 진흥 사업에 안정되고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정광훈은 현재 종교와의 투쟁을 통해 종교문제를 처리하려는 수법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내어 민족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목표는 오히려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신도대중이 사회주의에 적극성을 띄도록 하는 데 종교계 애국조직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 정씨는 이런 이유로 정부는 마땅히 종교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도와야 하며 종교조직이 신도들 가운데서 일하게 하고 정부는 행정명령을 빌미로 종교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19호문건》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

《19호문건》은 「종교신앙문제를 포함하는 사람들의 사상문제, 정신세계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해롭다.」고 말한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종교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종교정책은 《19호문건》의 정신과 점점 멀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

때 정광훈은 《19호문건》의 원칙에서 후퇴하지 말고 견지하며 이 정신에 따라서 행사하기를 강조하며 종교계의 애국역량을 신임하며 그들을 보조해주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광대한 신도 대중이 당과 정부의 주위에서 단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광훈은 정부의 종교단체에 대한 신임정도를 묻고는 정부가 종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후 종교계의 신도와 정부, 종교계 애국조직간에는 부정적인 좋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무슨 이유로 종교계 애국조직은 신임을 얻을 수 없었는가? 통제로 인해서 죽은 듯이 숨죽이며 자체의 종교조직의 특성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활동할 수 없는가? 단지 몇 사람만을 신임하며 종교인들의 관심사는 돌아보지 않으며 행동명령에 의한 신도의 통제를 과신하여 애국종교단체를 쓸데없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심지어는 수다한 신도들과 서로 대립하는 세력이 되게 하였다. 이 결과 당과 대중간의 관계는 대단히 긴장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이 글은 해외 종교세력의 침투와 불법적 활동을 종교활동의 주류로 보지 말 것과 현실상황은 정부의 견해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정광훈은 침투와 불법적 활동의 관리를 반대하지 않으며 현실상황의 한 면만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종교활동이나 단체마저도 타격과 관리의 첫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종교애국조직의 독립자주적인 모습을 쟁취하고 유지함

강연내용은 '오늘날과 같은 모든 것을 붉은 색 안경을 쓰고 보는(凡事左三分)' 처리수법에 대하여 비평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종교를 통해서 대중을 단결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대중을 좌절시키고 심지어는 신도가 많은 가

정교회(이 가정교회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한다.)를 철저히 단속을 시작하기까지 하여 각처의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서 여기저기서 양회로 달려와 도움을 요청하게 하였다. 정씨는 이런 관리와 통제는 종교에 극도로 열광하게 할 뿐으로 종교활동은 뿔뿔이 지하로 숨어들게 되어 더욱 사람을 망치기 십상이고 제도끼리 제 발 자르는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리라 생각했다.

이 글은 40년 동안의 종교업무의 가장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총괄하여, 행정명령의 수단으로 사람들의 사상이나 신앙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종교관리와 신도단결은 마땅히 정부의 종교업무부서와 종교계애국조직에 의지해야 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씨는 두 단체가 당의 영도하에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으로 상호간에 지인과 협상과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정광훈이 당의 정치입장과 같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정부가 종교단체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자율통제를 신뢰해 주어서 교회업무 처리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형성하여, 현재의 종교조직이 관변색채를 띠고 있다는 인식들이 불식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광훈은 정부가 명실상부한 종교업무부서를 운용하고, 진정한 종교관리의의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종교간부의 성실한 체험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의 강화는 세 가지 단계와 성질이 다른 이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정부의 종교관계업무와 종교관계간부의 관리
2.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업무관리
3. 종교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침투와 불법활동에 대한 관리

정씨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의 세 가지 업무의

관리가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실시되지 않아서 항상 함께 언급되어서 매우 큰 혼란이 있었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통제하였다. 그는 또 종교간부에게 종교에 대한 반감을 털어버리고 신도와 속엿말을 할 수 있는 친구로 사귀고 군중업무와 통전업무, 사상설득운동의 고단수가 되기를 배우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종교관리를 강화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고 권고했다.

동구의 변혁이 중국정부에 가져다 준 계시

동구의 변혁을 언급한 담화내용 중에서 정광훈은 동구에서 종교문제를 무력하게 처리함으로써 거대한 변혁을 초래한 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동구사태에서 교훈을 받아 종교활동을 더욱더 제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더욱이 종교활동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는데, 이 견해는 종교계가

신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만 조성할 뿐 더 나아가서 당과 종교신도간의 관계만 소원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광훈은 폴란드와,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사태의 자료를 예로 들어서 종교지도자가 정부와 대중의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쌍방에 대해서 평형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동구의 어떤 교회지도자가 과거 오랫동안 정부와 협조하다가 사태 후에는 그들이 교회의 이익을 배반했으니 반역자라고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광훈은 양회가 정부의 견제를 받고 있기에 이미 자체적으로 교무를 처리할 독립적인 상태도 아니고 동구교회처럼 감히 정부의 명령에 맞설 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루마니아사태를 정부가 민족문제를 부당하게 처리한 결과로 인용하였지 종교가 사태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동구권의 경험을 통해서 정부가 민족정책과 종교정책을 잘 실시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끼고 각 종교가 대중을 잘 유도하고 교육하게끔 촉진함으로써 신도들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확대시키기를 바랐다.

정광훈은 최근의 여러 가지의 사건에서 보듯, 정부의 종교부문 담당관리가 명령을 발동하여 종교활동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공산당이 통전의 우세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나머지 행정명령이라 수단에만 얽매어 있음을 폭로해 주는 것이라 보았다. 정씨는 이 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도 정부가 종교통전의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고무시키면서 정부가 방비나 관리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종교계를 신임하여 주도록 설득코자 시도하였다. 장래의 종교상황은 반포될 종교법의 내용에 좌우될 것인데, 이를 살펴 보아야만 정부가 종교계를 신임하고 있는지의 태도 여부를 좀더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守望中華》 제103기(91.7-8) p.15-16 에서



(중국 어느 삼자교회안에 있는 연보궐)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V)

- 중국교회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함 -

林治平

(연구부 제공)

V.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의 필요성

상술한 분석검토를 통해서 볼 때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는 확실히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복음이 오래도록 뿌리내리고 발전하게 하려면 기독교「토착화」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교전파학의 관점에서는 복음의 내용 및 그 성질은 반드시 부호체계의 토착화를 통해서만 현지에 뿌리내릴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땅끝까지 두루 전파되게 하려면 역시 「토착화」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 중국 각지교회에는 모두 선교사역을 중시하고 있는데 풀러신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칠 때 교회의 가장 우선해야 할 선교사명은 바로 「異文化 선교사역 (cross-culture evangelization)」이라고 한다. 어느 異文化 선교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는 반드시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문화의 각 종문화의 기저선(cultural base line)을 이해하여, 선교사 자신의 본토문화부호에 의거하여 이문화의 문화부호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아울러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이념을 본토화과정을 통해서 이문화 가운데서 뿌리내리려 발전하게 해야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이 자신의 문화사회 중에서 뿌리내리게 하거나, 이질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이문화 속에서 뿌리내리고 발전하게 하는 데는 다 토착화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관념이 된다.

VI.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의 가능성

과거 중국교회의 역사발전사실의 검토에서 우리는 중국 기독교토착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데 아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1) 문제분석

과거 중국에서 발전한 천주교 약 400여 년을 포함하여 기독교 180여 년의 선교역사 속에서 행위과학의 방법을 활용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우선 그 전파 과정상에서 발생한 토착화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그 진상을 확실히 파악해야만 한다. 감정이 앞서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문제를 알 수 없게 해서는 안된다.

(2) 성서해석학의 운용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토착화문제를 얘기할 때 기독교와 중국문화가 다

환원과정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중국교회가 받아들인 서방형태의 기독교는 마땅히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어야 하며 끼입혀진 서방문화의 외피를 벗어버린 후 진정한 기독교니 토착화된 기독교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중국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마땅히 환원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환원과정이란 한편으로는 중국(유교)문화의 진정한 함의를 탐구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문화의 발전에 근거를 두어 나온 기독교의 특질과 정신을 이해하고 「성서해석학」의 분석을 거친 후 서로 상충되는 점을 찾아내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장기적인 연구분석과 대화협상을 거치고 다시 정합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정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또 어떤 학자는 비교적 분명하게 서로 통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사랑과 중국 유가의 仁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양자는 해석상에서 비교적 쉽게 결합할 수 있다.

(3) 전문가의 소집

토착화문제를 토론하는 데는 신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선교학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과학이상의 행위과학방법으로서 토론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런 전문가들은 견실한 신학적 기초와 풍부한 경험적 신앙 및 성경해석에 대한 상당한 소양을 갖추고 실제 상황과 연관지어 연구를 진행해야만 우리가 현재 실현해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4) 타문화경험의 흡수

기독교쪽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도 기독교 이외의 학자 및 각계인사들과 접촉하여 대화하고 아울러 타문화를 접촉해야만 비로소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디인가



(중국 어느 삼자교회의 내부)

를 알 수 있다. 이런 대화를 거쳐서 중국지식계 층과 일반 백성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관심 갖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난 후에야 이것에 대처하여 선교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기독교의 바깥쪽에서 얘기하자면 개방적인 태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상호간에 대화할 수 있고 완전 토착화할 수 있다.

(5) 신학적 시야의 확대와 신학교육의 개선

토착화의 요구에 직면하여 오늘날의 신학교육은 반드시 다시 출발하여 대담하게 개혁해야 한다. 과거의 중국교회사의 발전에서 본다면 중국교회나 신학교육은 중국의 사상·문화·역사·교회사에 거의 주의하지 않았다. 지금이야 그랬지만 중국의 신학교육은 서방에 편향되어 있었으며 자전의 각도에서 본다면 받은 신학교육의 배경도 순수하게 중국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의 신학교육에

서 마땅히 이 방향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신학교육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구조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여 중국문제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신학생은 선교학을 옹계 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받은 인재가 서양 변증학상의 문제에만 얽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등의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틀을 받아들여 중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결합할 방법이 없게 된다. 또 많은 민간사회, 특히 이른바 민간신앙의 사회는 이해할 방법이 없고 복음을 전할 때 부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토착화와 선교의 목적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의례나 제사 등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더욱 용감한 태도로 대처해야 하며 즉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계속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다.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 말고도 또 많은 부호의식 같은 표면적인 문제가 첫째 장애일 것이고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깊숙이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이상의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신학교육의 시야는 반드시 넓혀져야 하며 신학교육의 내용은 반드시 더욱 토착화를 심화해야 하며 전도인재의 토착화소양과 훈련정도는 필히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야만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6) 대전통(大傳統)과 소전통(小傳統)의 병행

중국에서의 토착화는 반드시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생각이 깊은 소수의 인사가 조성한 대전통은 생각이 없는 대다수가 조성한 소전통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소전통도 대

전통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그 중의 하나에 편중되었다면 반드시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 토착화가 인류의 사상가·신학자·학자에게 던지는 일대 도전은, 각종의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기독교가 순수한 신앙입장에 서면서도 자신과 중국문화가 서로 통할 수 있는 맥락을 찾게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으로서 실천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기층문화까지 파고들어 그 중국의 일상생활의 기층문화에서 연마되고 단련받아 생명의 열정을 다 쏟아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 과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VII. 結 論

기독교의 기본이론 즉 그 중요한 진리와 원칙은 영구불변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각 민족에게 빛을 발하려고 한다면 각 민족 속에 뿌리내리고, 융화하고 세우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중요한 진리를 각 민족 문화·사회생활 속에 구체화시킨 토착화 관련화 정경화과정을 통해 서만이 비로소 기독교는 각 민족의 기독교로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각 사람의 마음과 문화생활 속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다. ◆



뉴욕화교부두 선교의 개척자

許芹(1854~1936)

廣東省 台山縣

許芹(1854~1936?) 목사는 해외 차이나타운에 헌신하여 전도 사업에 종사한 재미화교의 한 사람이다. 청말 중국인들의 미국이민의 물결에 편승하여 중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근면과 노력으로써 그는 보다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였다. 그는 훌륭한 영어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귀의하였고 목양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대학 및 신학원에 들어가 깊이 있게 공부하였다. 졸업 후 장로회의 파송을 받아 뉴욕의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전도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와 그의 미국인 부인의 손발에 못이 박히는 노력으로 뉴욕에 중국인들의 첫 자립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또한 뉴욕지구에서 중국국적을 가진 목사가 운영하는 첫 교회이기도 하였다. 許芹은 여러 해 동안 뉴욕 중국인교회에 헌신하였으며, 만년에 목사직에서 은퇴를 한 후에는 낙엽

이 그 뿌리로 돌아가듯 조국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소원이 일게 되었고 그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모두 가업을 이어서 許芹의 뜻을 계승하여 탁월한 성과들을 거두어 들었다. 근대 중국 기독교계에 있어 許芹 일가는 그 명성이 宋氏가정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훌륭한 가정이라 할 것이다.

許芹 목사는 1854년에 탄생하였으며 출생지는 廣東省 臺山縣의 永寧村이었다. 臺山의 위치는 廣州의 서남쪽, 靑山縣의 서쪽에 있었으며 부근의 開平, 恩平, 新會의 三縣과 함께 '四邑'이라 합칭되었다. 이곳은 廣東省에서 가장 유명한 회교들의 고향중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네 읍의 사람들은 모두 모험정신이 풍부하였고 게다가 이곳의 환경은 결코 이상적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너도나도 해외로 나가 돈을 벌었다. 四邑에서는 淸 중엽 이후 미주대륙으로 이민을 떠나는 풍조가 만연하였는데 許芹도 이 四邑의

사람인지라 예외일 수가 없었다. 그는 14살 되던 해 역시 기선을 타고 동쪽으로 건너와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서 돈을 벌었다. 許芹의 가정은 중국의 전통적인 농촌가정이었다. 일하며 공부하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내력이었으므로 어린 시절에는 형제들과 함께 시골 서당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부터 미국 대륙에 대하여 이미 대략 들어 알고 있었다. 아울러 어느 정도 동경심을 갖기도 하였다. 후에 許芹의 3녀 許靈毓은 부친을 회상하는 어느 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許芹)는 다른 소년들과 같이 永寧村이라는 좁은 지경 밖의 광대한 세계를 꿈꾸었다.”

1868년 9월, 許芹에게 기회가 왔다. 그는 한 척의 범선이 홍콩에 정박해 있는데 곧장 샌프란시스코로 향해 갈 것이라는 풍문을 들었다. 이에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얻고 친척들에게 돈을 꾸어서는 배표를 살만한

돈을 마련해가지고 사촌형들과 함께 臺山으로부터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14살이었다.

許芹은 60일이나 되는 긴 항해여행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으로 인도되었다. 許芹은 그곳 차이나타운의 생활이 고향에서의 생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조금도 이국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잠시 동안의 즐거운 날들이 지나자 許芹은 나가서 일을 찾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당시 중국인들의 미국이민의 황금시기는 한번 가버리고 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인들을 배척하는 풍조가 한창 격렬해지고 있었으므로 돈벌기가 쉽지 않았다. 하물며 許芹처럼 아무런 기술조차 없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라.

許芹은 처음에는 한 미국인의 가정에서 하인 노릇을 하였으나 매주 1달러 50센트라는 아주 보잘 것 없는 봉급을 받았다. 오래 못되어 오클랜드로 가서 농장을 경영하는 독일계 미국인 부부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부부는 기독교인이었다. 매번 주일이면 항시 許芹을 불러 예

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許芹은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또 주인의 비위를 맞추어 주기 위하여 혼연히 그들의 청에 따랐다. 점점 시간이 지나자 許芹은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커다란 흥미를 갖게 되었다. 또 그가 참석하는 교회 --- 오크랜드 百老准 장로회 목사 예야거(藝雅各) 박사 부부의 우정어린 접대를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1874년 7월 정식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 날 이후 그의 믿음은 날로 돈독해져 갔고 전도사업과 목양사업에 헌신할 뜻을 갖게 되었다.

예야거 목사는 許芹의 그러한 부지런함과 웅대하고 장한 뜻이 충만해 있음을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곁에서 그를 도와 주었다. 그는 許芹을 위해 펜실베니아의 르네와(日內瓦) 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許芹은 마침내 1882년이 학교에 들어가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 2년 후(1884) 다시 펜실베니아주의 西方대학(지금의 피츠버그대학?)과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의 레이언(勸恩)신학원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1885년 여름 졸업하였다.

許芹은 학업을 일단락 지은 후에 즉시 장로회 전도부의 파송을 받아 뉴욕의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교회개척사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상점과 세탁공장을 방문하면서 비로소 중국인 사회의 상황과 문제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먼저 주일학교부터 손을 댔고 점점 성인에까지 전도를 확대해 나갔으며 마침내 하나의 중국인 교회가 이루어질 만큼 규모를 확충해 나갔다.

許芹이 고생하며 차이나타운에서 전도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무렵 한 네덜란드계 미국인 루이스 아남(Louis Van Arnam)이라는 여인이 주일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차이나타운 교회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였다. 후에 그녀는 또 장로회 전도부 파송을 받아 許芹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으며 함께 뉴욕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사업관계로 인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게 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사랑하게 되어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이 외국인과의 결혼은 당시 보수적이었던 사회에 확실히 커다란 충격

을 주었다. 그들은 대학구내의 장로교회를 택하여 식을 거행하였다. 주임목사인 알렉산더 박사가 주례를 맡았다.

許芹과 그의 부인 루이스 아남은 결혼 후에 더욱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중국인들 사이에 전도사업과 목양사업에 헌신하였다. 당시 차이나타운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에 빠져있었으며 도박이 성행하였다. 許芹부부는 열심히 동포들에게 이러한 악습을 줄여나갈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들이 도박의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껏 도왔다. 또한 그들의 심령을 정화시켜 그들에게 낙관적인 인생관과 그리스도의 영생에의 소망을 가져다 주려 하였다. 이 방면에 許芹부부는 대단한 심혈을 기울였고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확실히 뉴욕 華僑社會에 있어 공적이 있는 훌륭한 목사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許芹 부부는 뉴욕 차이나타운에서의 열심히는 전도의 결과로 마침내 신도들의 헌금으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게 되었다. 마침내 뉴욕시 제일 中華長老敎會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許芹 부부는 뉴욕 차이나타운에서의 열심히는 전도의 결과로 마침내 신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게 되었다. 마침내 뉴욕시 제일 中華長老敎會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 교회는 뉴욕시 맨하탄 중구에 위치하였다. 이 교회의 성립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그것은 뉴욕지구에 세워진 첫번째 중국인 자립교회였고 둘째 그것은 뉴욕지구에서 중국인 목사가 담임하는 첫번째 교회였던 것이다.

許芹이 담임하던 뉴욕 제일 중화장로교회는 대학 부근에 있었으므로 콜롬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학생들과 穆德街와 唐人街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예배에 참가하는 교인수가 대단히 많게 되었다. 許芹 목사는 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여 교회당을 개방하였으므로 뉴욕에 온 중국인들이 교회로 가서 며칠씩 묵어도 여전히 환영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혁명중에 망명한 孫中山 선생은 매년 뉴욕에 들를 때마다 항상 許芹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속

사에서 머물렀다. 許芹은 孫 선생과 수년 동안 교분을 가졌으며 막역지우가 되었다. 그래서 매년 孫 선생이 뉴욕에 오게 되면 許芹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의 도리를 다하여 손 선생을 정성껏 모시었다. 許芹의 회고록과 딸 許靈毓의 회고에 의하면 혁명시기에 혁명당원 王寵惠, 寵佑 형제가 항상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五權憲法의 이론적원칙은 바로 이 시기 이 곳 교회 2층 방에서 토론하여 결정한 것이었다. 許芹 부부는 國父를 접대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으며 또한 그의 정치생애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國父를 도울 수 있음을 영광으로 여겼다.

許芹 부부는 만년에 은퇴한 후 낙엽이 그 뿌리로 돌아가듯 1919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여섯 명의 딸을 길러냈는데 모두 훌륭한 신앙과 교육지식을 지닌, 근대사에 있어 걸출한 인물들이었다. 晏陽初, 朱友漁, 桂質庭, 張福良 네사람은 모두 許芹 부부의 사위들로서 국가와 사회, 교회에 공을 세운 이들이었다. ◊

(中國基督教人物 小傳 上卷)

한 공산당원의 구원

王少芳

(번역부 제공)

나는 날 때부터 골수 공산주의자였다.

나는 「혁명」가정에서 자라나 부모가 부대에서 공업설계소로 직장이 바뀌었던 탓으로 가정 형편은 자연 부유한 층에 들어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보살핌을 받았고, 또 적지 않은 혁명이론의 주입과 영향을 받아 그 배경이 「나면서부터 공산주의」라 할 만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마침 기세도 등등한 문화대혁명 시기였는데 나는 '우리가 영웅호걸이다'라는 식의 어투로 열렬히 가슴을 치며 "나는 紅五類(주: 노동자, 농민, 병사, 혁명간부, 혁명열사를 통털어 이르는 말)다." 하고 얼마나 수도 없이 말했는지 모른다. 당의 부름은 나를 문혁 투쟁의 와중으로 밀어넣었다. 더욱 紅五類란 배경은 내가 수백 수천의 홍위병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내가 당의 말을 잘 듣고 당사업에 적극적인데다가 혁명사상으로 딱 차 있었으므로 학교 당조직이 나에게 대해서 「적에 대해 입장이 확고하고 계급성이 분명하며 당과 동지에 대해 깊은 열성이 있고 충성심이 뚜렷하니 어찌 좋은 동지가 아니겠는가!

라고 인정해 주었다. 이 때문에 나는 매우 빨리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었다. 후에는 추천을 받아 위생학교에 무시험 입학하게 되었고 게다가 쟁쟁한 학생지도자가 되었다.

당의 부름으로 서하병원에

1971년 8월 나는 간호사 훈련을 마쳤다. 안정된 자리로 걸어나가려 할 즈음에 학교의 당서기가 나를 불러내더니 내가 서하병원에 가게 된 까닭과 그곳에서의 「실제필요」를 일러 주었다. 나는 당의 배치에 전적으로 복종한다고 표시했지만 당서기가 강조한 「실제필요」란 것이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당의 이익에 절대복종한다는 원칙 하에서는 따져 물어 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내가 외과 병동의 간호사가 아닐 뿐더러 게다가 석 의사를 개조하는 교육임무를 떠맡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방금 튀어나온 계급애를 통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의사를 개조해 보겠다는 것이 황당하고도 가소로운 일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나 지대한 권력

의 국가와 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야 누가 감히 당의 말을 듣지 않겠는가? 석 의사가 기독교가 정 출신이란 말을 듣고 나자 나는 이마를 잔뜩 찌푸리며 '이번은 정말 화강암을 만난거야!' 하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난 이 제멋 반종교 무신론자였고 보통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락없이 미신 신봉자, 낙오자, 구제불능의 인간들 앞길이 딱 막힌 자들이라고 여기며 몹시도 미워했다. 지난날 문혁 초기에 나는 홍위병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성경을 수색해 내어 불태워버리고 교회당을 봉쇄하고 교인들을 핍박하며 사상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오늘은 나보다 한 수 위의 의사와 상대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그런 가정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좀 어렵겠다고 느끼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를 물랐다. 옛날 같았다면 야 군중을 동원하여 그를 끌어내어 비판투쟁을 한번 벌이고 억지로 사상개조를 행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통하지 않게 되었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당은 내가 여기

와서 그에 대한 사상개조의 일을 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으리라! 나는 내 생명과 당의 사업을 하나로 연결시켜 생각할 때마다 용기와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 당원이란 위신을 앞세우며 석 의사에게 공세를 펼쳤다.

모 주석은 당원들에게 항상 「조사 없이는 발언권도 없다」라고 가르쳤다.

석 의사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에 대한 투철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남을 알고 자기를 안다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상 영역의 투쟁도 예외는 아니니 가!

나의 사상개조자 석 의사

내가 석 의사를 좀더 이해하게 되면서 알게 된것은 연로한 그의 어머니 말고도 두 형과 형수와 누나가 있는데 집안 여러 대에 걸친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중심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아주 융화가 잘 되어 기쁨으로 생활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어떠한 압력에서도 중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석 의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그의 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다 하며 자식들을 길러내었으며 더구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자식들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효성이 아주 지극하다.

이러한 가정이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이라면 무슨 죄가 있을까?

석 의사는 중산학원을 졸업한, 성품과 학업이 모두 뛰어난 수재로서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며 사상이 단순하고 전심전력으로 의학을 연구, 남달리 빨리 학문이 깊고 뛰어난 의술을 지닌 주치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도 좋고 병자에 대한 책임감이 깊고 사랑도 있어 대중의 깊고 넓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렇다지만 장기간에 걸쳐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더욱이 집을 떠난 지가 아주 여러 해가 되었고, 기독교 집회에 거의 참석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그의 영적 생명상 반드시 그가 연약해져서 믿음에도 점점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처음에는 비판을 받을까 봐, 후에는 더욱 핍박과 앞날이 막힐까 두려워서 틀림없이 차츰 차츰 하나님과 멀어졌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그의 심리를 잘못 계산하고서 그의 사상의 벨브를 열어 제치고는 그의 생활 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었다. 많은 접촉과 담화, 변론 「마음의 교류」 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이에는 대립이 양해로, 분열이 융화로 바뀌어 갔고 한걸음 더 나아가 솔직하게 대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끝내 나의 동기와

임무를 저버리지는 않았는데 나는 공산당원으로서 줄곧 공산주의에 충실하여 당의 모든 결정을 집행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에 타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당시에 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부서뜨릴 수 있고 그들에게 무슨 예수구원이니 영생영사 같은 것들이 모두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털끝만치도 근거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터였다. 나는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고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미신의 구렁텅이에서 깨어나오게 하려 했다. 나는 석 의사를 개조함과 동시에 이상적인 남편을 얻게 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이것은 비단 내 희망이었을 뿐 아니라 당의 의도이기도 했다. 「실제적 필요」라는 말 뒤에는 이미 당의 계획이 깔려 있었다. 쟁취-개조-단결-이용, 이것이 지식계층에 대한 당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음을 내가 어찌 몰랐겠는가?

기독인은 약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매번 내가 토론중에 신앙문제 이르게 되면 종종 석 의사의 눈 속에 있는 어떤 침범할 수 없는 위엄스러운 빛이 내게 미치어 나는 크게 용기를 잃고 말문조차 열기가 어려워짐을 느끼곤 하였다. 한번은 산책하게 되었을 때인데 나는 큰 마음

을 먹고 용기를 내어 석 의사에게 “당신은 재능있고 총명한 의사인데, 앞날을 위해 마땅히 「又紅又專」(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기술에 정통한 자가 되는 일)의 길로 나가 미신을 버리고 비무산계급 사상을 잘 개조하여 당과 함께 영원히 걸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석 의사는 굳굳하고도 객관적인 자세로, “나는 紅專의 길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미신이 아닐 뿐더러 천만번 지당하며, 현실문제를 피할 수 없다.”

허! 그가 뜻밖에도 감히 당원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시니! 나는 조금도 사정없이 그의 사상을 비판하고, 그에게 닥칠 위험성을 꼬집어 내었는데 조금도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틈만 있으면 내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들었던 것이다. 이상하다! 나는 몹시 놀랐다. 만약 그가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운행하지 않았다면 어디서부터 그의 그런 담력과 용기가 생겨났겠는가?

마르쿠스는 일찍이 종교란 약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강자에게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석 의사와 그의 집안, 또 모든 기독교인이 약자란 말인가?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석 의사를 두고 말한다 해도 그는 이미 자

기의 굳건함과 믿음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많은 사실 앞에서 마음 속에 맺힌 의혹을 풀 길이 없었는데 이를 테면 기독교의 도리가 자발적인 사랑에 터한다는 것과 같은 사실에서였다.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당은 어째서 고난과 핍박을 가해서 인민이 스스로 분별해내지 못하도록 한단 말인가?

석 의사의 어머니는 도대체가 법률에 저촉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단지 기회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뿐인데 이것이 무슨 죄악이라고, 무엇 때문에 그녀를 모해하여 이 선량하고 자상한 노인네를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끌어다 놓았던 말인가?

내가 석 의사와 이 사건을 이야기하게 될 때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를 믿는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의 시련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 설마 그가 인성이나 효성이, 또는 모자의 정이 없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처지를 참아내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었다.

들리는 말에는 석 의사의 어머니가 사상투쟁을 당해 감옥에 있을 때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띄지 않았으며 대담무쌍한 정신으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 그 노인네는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는 듯 자신만만하였는데, 이렇듯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확실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도대체 그녀의 강력한 힘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던 말인가? 당시에 석 의사의 어머니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것은 대체 무슨 믿음이란 말인가?

나의 탐구, 나의 변화

나는 석 의사가 내게 “복음의 기이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하의 죄인이 회개하여 변화하고 거듭나 구원을 얻게하여,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한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 마음 속에 맺힌 의문들을 풀기 위해 석 의사가 권해준 대로 성경을 접촉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시인 다윗의 말씀 한마디가 나의 적대시 하던 마음에 부딪쳐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순간에 변화를 겪게 되었

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내가 비록 상상할 수는 없다 해도 나는 깊은 종교적 신비를 체험케 되었다. 감히 더 이상 나의 무신론을 고집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하나님을 모독한다든가 저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공산당원이었다. 당의 다년 간에 걸친 교육양성을 받았고 자칭 마르크스주의자인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와 레닌, 두 사람의 소위 혁명 창도자의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가? 그런데 그들이 창도한 공산주의가 완전무결한 주의란 말인가?

나는 결사적으로 매달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책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들이 창도한 공산주의란 지구상에서의 인류생존을 언급한, 어쩌면 가장 좋을지도 모를 일종의 학문적 이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한갓 구상에 불과하다면 마침내는 변질될 수도 있고 이런 사상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사람이요, 이런 주의를 지배하는 것도 사람인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7정6육이 있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정도의 사리추구, 탐욕, 나태와 질투의 죄악이 있다. 공산당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당성이 얼마나 높은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얼마나 해박한지에 관계없이 그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으며 한 그루의 「정육의 나무」로서 사

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등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 명예와 지위 권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투쟁을 일삼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진정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탐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새 생명은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끔 하고 인류를 위해 더욱 풍성한 생활을 창조하도록 이끌어 준다.

예수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려 사람들을 구한 것과 공산당이 제창한 인민을 위한 봉사라는 것과의 비교같은 것은 본질상 차이가 있다. 마르크스가 진정 남겨 준 것이란 무신론적 물질주의와 우월한 지혜에 대한 자신에 불과한 것이요 레닌이 남겨 놓은 것은 갖추어진 규율과 권위적인 당의 관념과 그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 외에 그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인류에게 남겨 준 것은 사랑, 인류를 구원한 영원한 사랑이 아니던가!

드디어 새 삶을 찾다

내가 더욱 구주를 깨달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며 나의 믿음을 굳게 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결심케 하셨다. 이리함으

로 내가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공산당원을 구원하여 개조시키고자 하기에 앞서서 충성스러운 신자를 그에게 보내 이해시키고 영향을 끼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원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내가 믿기는, 한 사람이 공산당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일 수는 없으나, 한 사람의 공산당원이 변하여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거듭나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대로 내게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비록 주를 믿게 되어 출당을 당하고 농촌에서 하방(주: 중국에서 정신개조를 위한 농촌 등에서의 육체노동 생활)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계셨다.

후에 나는 석 의사와 결혼하였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농촌에서 제법 규모를 갖춘 진료소를 열어 수천 수만의 농민의 병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환경은 비록 어렵고 고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럽고도 밝은 경지를 만들어 주셨으며 우리는 기쁨으로 가뭄 차 백 갑절 강한 믿음으로 사탄과 싸우며 영생하시며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해 본다. (礫中湧泉 중에서)

중국어로 찬양을!

以馬內利 Emmanuel

Dave Moody

C 0 5 i . 7 | F 6 - - - | Dm7 6 4 7 . 6 | G7 5 - - - | Em7

以馬內利, 以馬內利,

Am 5 3 6 . 5 | Dm7 4 - - - | G7 4 2 5 . 4 | C 3 - - -

祂名稱爲 以馬內利;

3 - i . 7 | F 6 - - - | Dm7 6 4 7 . 6 | G7 5 - - - | Em7

神同在 彰顯榮光,

Am 5 3 6 . 5 | Dm7 4 - - - | G7 4 4 3 2 | C 1 - - - | F 1 - - - | C

— 祂名稱爲 — 以馬內利。

우리말 가사: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흥미있는 이색 구혼담

(번역부 제공)

이번 호에는 중국인들이 이상적인 아내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국 여러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색 구혼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한다.

천진 남부 운하지역에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착실하게 살아가는 한 홀아비가 물가에 살았는데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있었다. 겨울이 되어 물이 얼게 되자 그는 밖으로 나가 마른 풀을 뜯어 모았다. 하루는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 근사한 식사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때에는 생각하기를 누군가 마음 좋은 이웃사람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했겠거니 했다. 그러나 후에도 날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밖에. 해서, 어느 날 좀 일찍 집에 돌아와서는 가만히 방안의 형편을 살펴보았는데 양유청에서 사온 새해그림에 그려져 있는 미녀의 손이 젖어 있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이 홀아비는 혼잣말로 "이 미녀를 내 아내로 삼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꼬!" 하고 중얼거리자 새해그림 속의 미녀가 곧바로 그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리하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이 홀아비가 아내에게 장가를 든 후에 살림

은 점점 나아지게 되었고 게다가 후에는 자식까지 얻어 행복하게 지냈다.

천진에서 멀리 떨어진 절강성 소흥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져 온다. 뱃사공 일을 업으로 삼고 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도사 한 사람이 그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도사가 잊고 온 물건이 있었던지라 그에게 여러 차례 뱃머리를 돌려 돌아가게 했는데도 이 뱃사공은 조금도 싫어 하는 기색이 없었다. 다음날 도사가 다시 나타나 그에게 한 폭의 그림을 주었는데 그 다음날 뱃사공이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자기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후에 그가 밖에서 몰래 방안을 훑쳐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림 속의 미녀가 그 속에서 나와 자기를 위해 밥을 짓고 있는 것이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이내 부부의 연을 맺어 1년 후 자식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이웃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실을 마을 원님에게 고해 바쳤다. 원님이 억지로 이 그림을 빼앗아 버리자 이 미녀는 그만 원님에게 매인 몸이 되었다. 그러나 1년 후 미녀는 아들 하나를 낳고는 그 아이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한편 섬서성 삼원현에서는 「九天玄女」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한 가난한 사람이 마을 바깥 외진 곳에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곧 새해는 다가오고 해서 자기가 모

아 돈 돈 이백 냥을 가지고 읍내로 가서는 한 폭의 미녀도를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그는 끼니때마다 우선 음식을 미녀도 앞에 공양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자기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다음날 그는 밖에 일하러 가는 척하다가 남아서 방안의 동정을 살피니 그림 가운데의 미녀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방안으로 뛰어들어 이 그림을 감추어 버렸다. 그림에서 나온 미녀는 들어갈 곳을 잃게 되어 하는 수 없이 그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고 또 2년 뒤에는 딸 하나를 낳았다.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그림을 가져오기를 부탁하니 그는 무슨 일이 있으랴 싶어 그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자 이 미녀는 이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 미녀가 九天玄女로서 지상에서의 기한이 차게 되어 하는 수 없이 하늘로 되돌아간 것이다. 앞서의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여러 지방에도 조금씩 다른형태로 전해 오는데 그림은 본래 민간에 보급된 지가 오래지는 않은 듯하나 이야기의 구상은 모두 특이하다.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씩 틀리지만 이야기마다 그림속의 미녀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점이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이야기들은 같은 기원을 가졌을 것이다. ◆

冊선교 도서 안내冊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3,000원
(전문인협력기구)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3,500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 서원) 4,800원

冊교재 안내冊

1. 中國語 聖經 7,000원
(신약+ 시편+ 잠언: 주음부호)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1,500원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1,000원
3. 經文背誦 1,500원
經文背誦 Tape 1,000원
4. 睡夢鄉 1,000원
睡夢鄉 Tape 1,000원
5. 飛行屋 1,000원
飛行屋 Tape 1,000원
6. 初級中國語 I 2,000원
初級中國語 I Tape(10개) 6,000원
7. 初級中國語 II 2,100원
初級中國語 II Tape(10개) 6,000원
8. 中國文化二十講 5,000원
中國文化二十講 Tape(3개) 1,500원
9. 我的第一本聖經 2,500원
我的第一本聖經 Tape 1,000원
10. 예수讚美(중국어 찬양집) 3,000원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EL. 594-8038)

“...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경준 (아시안미션 대표간사)

벧전2:9 말씀을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함께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번은 어느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일이라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 이제 두 분은 한 부부로서 꿈 같은 삶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남의 집에 전세로 살면서 연탄도 갈아야 하고, 주인집 눈치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두 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앞으로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 “자, 이제 신랑신부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는 당당하게 걸어 나갈 때 하객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이 두 사람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분위기였는지 모릅니다. 글쎄 내가 아직 결혼 전이었고 경제적으로 비슷한 처지였던 터라 그 말씀들이 인상깊었고 지금까지 내 마음 속에 기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껏 들은 결혼 주례사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400만 원 전세보증금으로 방 하나를 세내어 이사를 가는데, 늘 마6:33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온 나였지만 무척이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내가 왜 이 사람들

집에 세들어 살아야 하나, 저 사람들이 우리집에 세를 들면 들었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시엔 새벽에 불을 켜면 식구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일찍 사무실에 나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 그 집으로 이사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진 성구가 바로 벧전 2:9 전후 부분이었습니다. “...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외우기까지 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슨 제사장의 태도가 이래?’ 하는 질문과 함께 스스로 무척이나 멋져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주인들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제사장인 내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왕같은 제사장인 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 마음은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날은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집 안팎을 깨끗이 물청소했는데 집 안팎이 깨끗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이 어찌나 환해지던지, 아마 나를 대하는 아내의 마음도 무척이나 밝아졌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3년 정도 있었는데 고장난 곳은 보는 대로 고쳐보고 마당의 나무들도 정리하고 연탄아궁이가 있는 지하실도 이따금 청소를 하는 등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년 전에도 이 말씀이 내게 귀한 교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차를 내주기 전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마침 사무실이 큰

아이가 입학한 학교와 방향이 같아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출근하곤 했습니다. 글썄 요즈음 서울에서 아이를 자전거 뒤에 태워 통학시키는 젊은 아버지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지만 아무튼 신이났습니다. 뱀전 2:9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पै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집 근처에 사는 명철이(우리 큰 아이 이름) 친구와 집 앞 사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유한 편이어서 자가용 운전사가 늘 태워다주었던 것 같습니다. 명철이가 먼저 “완수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 반갑다고 “명철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명철이가 다시 “완수야, 우리 아빠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묘하든지.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 요즈음 아이들이 하는 말로 ‘×팔린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 명철이를 학교까지 태워다주는 이 10여 분의 시간은 명철이와의 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며 학교생활에 대해 듣기도 하고 때로는 꽃이름대기, 나무이름대기, 동물이름대기, 더하기 빼기 등을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차 옆을 달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명철이 친구가 타고 있는 자가용 앞에서 내가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었는지. 그날은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학교까지 태워다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뱀전 2:9 말씀이 또 얼마나 나를 방망이질하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알량한 내 자존심을 다시 한번 두들겨 부수어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왕이 몸소 또는 아들을 시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신하들이 모르게 궁을 벗어납니다. 옷은 약간 남루하게 입고 주막집 마루에 걸터앉아 저만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요즈음 살기가 어떠하시오?” 백성들이 왕에 대해, 왕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양으로

넌즈시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이 왕이나 왕자의 남루한 옷을 보고 사람들이 때로는 알잡아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우하든지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처구니없는 대접을 받으면, ‘어허, 이 사람들, 내가 누군줄 모르네 . . .’ 하면서 오히려 속으로는 측은해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왕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 이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평민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이 세상에서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잠시 평민복을 입고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사실입니까! ◆

※편집자주: “. . . 왕 같은 제사장이요 . . .”를 쓰신 이경준 간사와 “QT나눔의 유익”을 쓰신 박원석 목사는 매주 목요일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제자양육을 위한 성경공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글은 『생명의 삶』 8월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QT나눔의 유익

박원석 목사 (한남침례교회)

1977년 8월말, 2학기부터 학교 성경공부반에 나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처음 QT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QT훈련을 위해 매일 아침 6시면 정해진 교실에서 모여 QT를 하고 서로 나누었다.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녔던 까닭에 이런 영적인 훈련이 가능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음을 고백한다.

점심시간이면 모든 성경공부반원들이 자유롭게 들썩, 셋씩 짝을 지어 QT를 나누었다. QT를 하지 않은 날은 듣기만 해도 좋았다. 서로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에 마음에 은혜가 되었고 말씀의 역사하심에 대해 감탄이 나왔다. 같은 날 같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통일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이러한 만남과 QT나눔은 QT를 정착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QT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성경반은 더 부흥되어갔다. 같은 반원끼리 깊은 교제가 형성됨에 따라 QT는 더욱 깊어졌다. 내가 느슨해졌을 때 같이 모여 나누는 QT는 내게 채찍질과 격려가 되었다. 어느 사이에 나는 QT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매일 아침 주님과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그 시간은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이니이다"(시143:8). 함께 모여 QT를 나눔은

서로 QT를 지속하게 하는 데 유익했고, 그 지속성은 지금도 훈련이 되어 QT를 계속하게 해주었다. 함께 공부했던 그 동료들은 지금은 각기 처소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현장에서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다. 성경반을 조직했고, 거기에서는 뺄 수 없는 주님과 교제인 QT가 강의되었고 실제 훈련에 들어갔다. 주부들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가. 자녀양육하랴, 살림하랴, 아침에 일어나면 눈비비고 쌀뜨러 먼저 가야 하는 정도가 아닌가. 게다가 매우 피곤들해서 한 시라도 더 눈을 붙이려는 마음이 간절한데 QT때문에 정신이 번쩍들어 해 했다. 처음에는 2개반으로 운영되다가 어느 한 과정이 마쳐진 후 한 반으로 합쳐 중요한 것부터 공부해 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 우선 순위가 QT였다. 동기부여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였다. 어떤 때는 성경공부시간에 공부를 중단하고 QT를 하기도 했다. 성경공부반에서는 점점 QT가 정착되어갔다. 도중에 한두 분이 그만 두셨지만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었다(그러다 보니 이제는 QT는 개인의 성실성까지 나타내는 순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약 7년 정도 공부하면서 모든 반원들이 적용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QT에서 적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적용을 위한 QT는 아니었으므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능한 적용점을 찾아가았다. 이런 점은 성숙의 증거이기도 했다. 언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QT에서 적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적용을 위한 QT는 아니었으므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능한 적용점을 찾아갔다. 이런 점은 성숙의 증거이기도 했다. 언제나 공부 전에 QT를 나누는데 각자의 QT를 나누다 보면 QT나눔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했다. 성경반원들은 지속적인 점검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은 QT에 최선을 다했다.

QT를 나눔으로 유익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 ①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환경이나 감정에 영향받는 신앙생활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했고,
- ② 서로 잘 알게 되어 돕고 격려함으로 성도의 교제에 풍성해졌으며,
- ③ 그들 스스로 지도자로서 세워지기 시작했다.
- ④ QT를 나눔으로 자기의 의견을 조리있게 발표하는 발표력이 향상되었고,
- ⑤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자매님이 중년이 되어 원만한 가정주부로서 성숙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으면서 평소 대학원 공부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다.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격려해주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어려운 영문학이었으므로 염려스러웠다. 수일이 지난 후 성경공부 QT나눔시간에 자매님께서 간증했다. 대학원 시험에 합격된 것에 우선 감사해했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다. 논술형 시험이었는데 합격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QT때문이라며 감사의 간증을 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QT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매일 아침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QT노트를 채워가는 그 훈련이 세상 시험을 치르는 데도 도움을 준

것이였다. 지금 그 자매님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성경공부반을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였던 모든 반원들 역시 섬기는 교회에서 중요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사역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이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QT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 절대적인 것이다. 실제로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 QT를 한 것이다. 금세기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QT시간을 가졌다. 그들이 참으로 훌륭했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규칙적인 교제를 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부터 나를 돕는 이와, 함께 공부했던 이들과 같이 하는 QT나눔이 없었다면 얼마나 성숙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전 4:9,10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유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두란노서원 제자훈련반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QT를 나누면서 또 많은 부분들이 보충되었다. 그 중 몇 분 목사님은 QT가 실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어 개인생활이 설교와 점점 일치되어간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때로는 전화로 QT를 나누었고, 어느때든지 만나면 먼저 QT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QT삶은 부흥되고 있다. 나눔이 없는 QT에서는 결단코 성숙도,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감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지속성이 없다면 QT는 세워질 수 없다. QT를 나누지 못한다면 말씀의 칼은 무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린다. 어느 날인가 분명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 . . (시 126:5,6). ◊

빌립의 세례

(사도행전8:29~39)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마차로 가까이 걸어가라”고 하셨다. 빌립은 곧 그 내시에게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곧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는 말하였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빌립을 마차에 타도록 청하여 그와 함께 앉았다. 그가 읽고 있던 그 성경귀절은 말하기를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또 털 깎는 자 손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도 이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가 보잘것 없을 때 사람들은 그를 공의에 따라 재판하지 않았으니(원문은 ‘그의 재판은 탈취당했다.’로 쓰여짐)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탈취당했기 때문이다.” 내시는 빌립에게 말하기를 “선지자가 말한 이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사람을 가리키는가?” 라고 했다. 빌립은 곧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던 중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내시는 말하였다. “보라! 저 곳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어떤 사본에는 이곳에, 빌립이 말하기를, “네가 온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는 귀절이 있다.) 이에 마차를 멈추도록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은 함께 물

있는 곳으로 걸어내려 갔으며,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내었고 내시도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한채 기뻐하면서 길을 떠났다. ◈

단어 해설

貼近	tiējìn	접근하다.
於是	yúshì	그리고. 그래서
段	duàn	사물이나 시간 따위의 한 구분을 세는 조수사
牽	qiān	잡아당기다. 끌다.
宰殺	zǎishā	도살하다.
剪毛	jiǎnmáo	털을 깎다.
羊羔	yánggāo	새끼양
卑微	bēiwēi	미미하여 보잘것 없다.
按	àn	~에 따라서. ~와 같이. 손으로 지긋이 누르다.
公義	gōngyì	공평하고 올바른
審判	shěnpan	재판하다.
奪	duó	빼앗다. 약탈하다.
妨礙	fāng'ài	① 방해하다. ② 지장
站住	zhànzhù	멈추다.
提	tí	① 손에 들다. ② 아래에서 위로 끌어당기다.

【原文】

SHĪTÚ XÍNG ZHUÀN 使徒 行 传

第 八 章

Shènglíng
29 圣灵

duì Fēilì shuō Nǐ qù tiējìn nà chē zǒu Fēilì jiù páodào tàijiàn nǎlǐ
对腓利说：“你去贴近那车走。”³⁰腓利就跑到太监那里，
tīngjiàn tā niǎn xiānzhi Yísāiyà de shū biān wèn tā shuō Nǐ suǒ niǎn de
听见他念先知以赛亚的书，便问他说：“你所念的，
nǐ míngbai ma Tā shuō Méiyǒu rén zhījiào wǒ zěn nēng míngbai ne
你明白吗？”³¹他说：“没有人指教我，怎能明白呢？”
Yúshì qǐng Fēilì shàng chē yǔ tā tóng zuò Tā suǒ niǎn de nàduàn jīng
于是请腓利上车，与他同坐。³²他所念的那段经，
shuō Tā xiàng yáng bèi qiāndào zǎishā zhī dì yòu xiàng yánggāo zài
说：“他象羊被牵到宰杀之地，又象羊羔在
jiǎnmáode rén shǒuxià wú shēng tā yě shì zhèyàng bù kāikǒu Tā beiwēi
剪毛的人手下无声，他也是这样不开口。³³他卑微
de shíhòu rén bù àn gōngyì shēnpàn tā (yuánwén zuò tāde shēnpàn bèi duōqu)
的时候，人不按公义审判他（原文作“他的审判被夺去”），
shuí nēng shùshuō tāde shìdài Yīnwei tāde shēngmìng cóng dìshàng
谁能述说他的世代？因为他的生命从地上
duōqu
夺去。”

Tàijiān duì Fēilì shuō Qǐng wèn xiānzhi shuō zhè huà shì zhīzhe
³⁴ 太监对腓利说：“请问，先知说这话是指着
shuí shì zhīzhe zìjǐ ne Shì zhīzhe biērén ne Fēilì jiù kāikǒu cóng
谁，是指着自己呢？是指着别人呢？”³⁵腓利就开口从
zhè jīngshàng qǐ duì tā chuánjiǎng Yēsū Èr rén zhèng wǎng qián zǒu
这经上起，对他传讲耶稣。³⁶二人正往前走，
dào le yǒu shuǐ de dìfang tàijiān shuō Kàn na Zhèlǐ yǒu shuǐ wǒ shòuxǐ yǒu
到了有水的地方，太监说：“看哪！这里有水，我受洗有
shēnme fáng'ài ne (yǒu gǔjuǎn zài cǐ yǒu Fēilì shuō Nǐ ruò shì yīxīn xiāngxìn
什么妨碍呢？”（有古卷在此有³⁷腓利说：“你若是一心相信，
jiù kěyǐ Tā huídá shuō Wǒ xìn Yēsū Jīdū shì Shén de érzi) Yúshì fēnfu chē
就可以。”他回答说：“我信耶稣基督是神的儿子。”）³⁸于是吩咐车
zhànzhù Fēilì hé tàijiān èr rén tóng xià shuǐlǐ qu Fēilì jiù gěi tā shǐ xǐ
站住，腓利和太监二人同下水里去，腓利就给他施洗。
Cóng shuǐlǐ shàng lái zhǔ de líng bǎ Fēilì tí le qù tàijiān yě bù zài jiàn tā
从水里上来，主的灵把腓利提了去，太监也不再见他
le jiù huānhuānxixide zǒulù
了，就欢欢喜喜地走路。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빌 4:6~7)

진정한 신자라면 어떠한 근심도 가져서는 안된다. 우리가 받는 시련이 얼마나 무겁든, 고통이 얼마나 깊든, 고난이 얼마나 크든 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근심걱정거리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듯이, 그분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즐거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슨 일이든지(凡事)」는 일상생활 중에서의 모든 大小事를 가리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凡事」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밤중에 전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웅당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며, 또는 우리의 갖가지의 자질구레한 일이라든가 혹은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그분 앞에 다 풀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며」라는 말은 우리가 웅당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리고 절실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의미는 어느때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는 적어도 그분께 이것만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즉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보라! 이 얼마나 우리가 깊

이 감사하고 찬미할 일인가?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참되며, 얼마나 값진 축복인가?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반드시 몸소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보라! 우리가 길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그에 따라 생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

우리는 항상 틈틈이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들의 마음이 쉬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될 때 곧바로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에 이를 것이다. ◇

단어 해설

病危	bìngwēi	위독하다
輾轉	zhǎnzhuǎn	① 얼치락뒤치락하다. ② 여러 사람의 손이나 혹은 여러 장소를 거처다.
困難	kùnnán	① 곤란. 어려움. 애로. ② 곤란하다. 어렵다.
誠懇	chéngkěn	성실하다. 간절하다
堅忍	jiānrěn	꼭 참고 견디다
脫離	tuōlí	이탈하다. 떠나다. 관계를 끊다.
讚美	zànměi	찬미하다.
寶貴	bǎoguì	① 귀중하다. ② 소중히 하다. 중시하다.

十月十三日

「應當一無罣慮，只要凡事藉着禱告、祈求和感謝，將你們所要的告訴神。神所賜出人意外的平安，必在基督耶穌裏，保守你們的心懷意念。」（腓四章六節，七節）

一個信徒不該有絲毫掛慮。無論我們的試煉多大，痛苦多深，困難多雜，總不能叫我們有掛慮的理由，因為我們有一位父在天上，祂是全能的，祂愛我們，正如愛祂的獨生子一般，祂樂意隨時隨地救濟我們、幫助我們。所以讓我們聽祂對我們所說的話：「應當一無掛慮，只要凡事藉着禱告、祈求和感謝，將你們所要的告訴神。神所賜出人意外的平安，必在基督耶穌裏，保守你們的心懷意念。」

「凡事」，不只是房屋着火，不只是所愛的病危，「凡事」包括日常生活中一切大大小小的事情；我們應當將「凡事」帶到神面前去！當我們夜半醒來，輾轉不能成眠的時候，就該頂自然地傾向神去，與祂談話，將我們種種瑣碎的事情帶到祂面前去——將一切家庭方面、職業方面的困難全告訴祂。

「藉着禱告祈求」，站在乞丐的地位上，用誠懇和堅忍來等候祂。

「和感謝」，我們應當隨時存感謝的心。如果我們以為沒有甚麼可叫我們感謝的話，至少有一件事是值得我們感謝的——祂救我們脫離死亡。祂給我們祂的道——祂的兒子——和聖靈。哦，這就夠叫我們大聲感謝讚美了。

「神所賜出人意外的平安，必在基督耶穌裏，保守你們的心懷意念。」這是一個何等大、何等真、何等寶貴的祝福！但是這個祝福必須親身經歷過纔會知道，因為這是出人意外的。哦，讓我們把這些話放在心上。如果我們能一直照着行的話，結果定會叫神得到更大的榮耀。——莫勒(Geo. Mueller)

我們應當時時察看自己有沒有甚麼叫我的心得不到安息？如果有的話，就當立刻到神前去對付，直到恢復了內心的鎮靜。——賽爾斯(Francis De Sales)



原文：『荒漠甘泉』중에서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중국동향

중교

* 문화부는 최근 각 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중국선교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대 중국선교활동과 여행에 따른 협조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 중국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종교행사적 성격이 강한 중국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회신문 91.8.25)

* 中國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東유럽과 蘇聯에서 급격히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한 것은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판단, 상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中國공산당은 또 「中發6호」라는 내부문건을 통해 전국의 종교활동관리부처가 철저히 종교활동을 감시 감독하라고 지시하면서 종교단체와 개인의 공개적인 포교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동아일보 91.9.5)

* 최근 14명의 대만교회 지도자들이 중국교회협의회(China Christian Council-CCC)의 초청에 따라 2주간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1949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대만교회의 중국공식방문이다. 이 방문단은 장로교, 루터교, 메노교(Mennonite), 성공회, 그리고 카톨릭 대표들이다. (한국교회신문 91.9.15)

* 최근 중국정부의 선교자제요청과 관련, K교단 및 K선교단체 등의 중국선교여행이 잇달아 취소됨에 따라 중국선교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달 J전도단체와 K의료팀이 중국연변에 의료선교활동을 떠나려 했으나 관계기관이 특정국 가여행 허가교육을 불허해 선교계획이 좌절됐다.

또 최근 K교단 목사 10여 명이 중국선교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여행계획을 수립, 출발예배까지 마쳤으나 정부가 목사들의 단체여행임을 알고 출국금지를 시킴으로 행사자체가 취소됐다. 이 경우는 목사들이 특정국가 여행허가교육까지 이미 마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금지된 것으로 미루어 정부가 중국측의 선교자제요청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일보 91.9.17)

* 최근 중국 정부 고위층은 소련, 동구권의 몰락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분석하고, 내부 문서인 「해외종교 세력의 침투를 경계하자」란 내용의 글을 통해 해외종교단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성증화기독교회에서 열린 중국선교대회에 주강사인 천레이 목사는 이에 따라 중국선교방법에 대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공산주의식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교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 선교는 서둘러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방송선교, 해외중국유학생의 제자화 훈련,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훈련과 신도들의 양육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91.10.7)

* 지난 7월 왕밍다오 목사가 소천한 이후 차세대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대 중국선교를 해온 선교단

체와 선교사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워치만니, 존상, 왕밍다오 등이 중국교회의 제 1세대 지도자였다면 이들이 모두 소천한 이후 중국교회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는 알란 얀, 임헌고 등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91.10.7)

*** 서창에서 첫 주교를 임명함**

중국 사천성 서창교회의 첫 중국인 주교가 5월 5일 북경에서 서품을 받았다. 현재 나이 80세인 사조강(謝朝剛)주교가 북경의 성모무원죄주교좌당(聖母無原罪主教座堂) 성당에서 서품의식을 거행, 종회덕(宗懷德) 주교의 집전으로 치루었다. 현재 사주교가 지도하는 교구는 신도가 2만 명이 넘는 교구로 사천성의 서남면의 소수민족 거주지에 위치한다. 사주교의 서품미사는 1958년 이래 사천성에서 전해내려 오던 '사천성의 주교는 통상적으로 성내의 본성주교가 서품미사를 집전한다'는 전통을 깨뜨린 것이기도 하다. 사천성에는 현재 모두 여섯 명의 주교가 있다.

(Asia Focus 1991.5.22; 《公教報》1991.5.31)

*** 대만 불교계인사의 대륙여행 재개**

5월 1일 부터 대만불교계가 주선, 준비했던 대륙진향단(대륙에 가서 향을 사르기 위한 모임)이 대륙의 입국허가가 좌절, 약 1000명의 신도의 발이 묶이게 되었다. 대만해협교류기금은 이 일로 국무원 대만사무처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줄곧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었다. 대만의 중국불교청년회 이사장 정정요(程淨耀) 법사는 중공의 태도가 불교계만이 아닌, 모든 종교계인사를 겨냥한 것으로 대륙쪽의 초청장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 및 기독교의 선교사도 모두 곤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러 경로를 통한 교섭 후 중공은 6월 1일부터

모든 여행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聯合報》1991.5.22, 《中央日報》1991.5.25, 《信報》1991.5.22)

*** 교황이 공품매를 추기경에 임명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월 29일 상해교구의 공품매 주교를 추기경으로 승격시켰다. 교황청은 이미 1979년에 그를 추기경에 임명했으나 그가 대륙에 있었으므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즉시 중국당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공주교는 1901년에 나서 현재 90세로 대대로 천주교를 믿었으며 중공이 상해를 점령하던 시기에 위협에 처해서도 명을 받들어 상해주교직을 감당키 위해 상해로 들어 가서 중공당국의 교회 통제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1955년 9월 8일 중공은 반혁명이라는 죄명으로 상해교구의 성직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는데 공주교와 38명의 신부와 수백 명의 수녀와 신도가 동시에 체포당했으며 역사적으로 “九八教難”이라고 칭해진다. 1960년 중공은 반동조직참가와 반혁명 등의 죄목으로 공주교를 무기징역에 처했으며 85년에 가석방되어 상해에서 연금되었고 1988년에는 치료차 미국에 건너가 지금까지 미국에 있다.

공품매는 책봉을 받은 후 “교회를 위해 수고할 기회를 가진 것은 나의 영광이다. 성직을 받아들인 후에는 대륙교회를 위한 유익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공주교는 또 중국교회는 중국당국의 제한으로 여명의 서광을 볼 수는 없지만 다시 중국교회로 돌아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싶다고 말했다.

(《信報》1991.6.2, 《公教報》1991.6.7, 《星島日報》, 《明報》1991.7.2)

*** 하기룡(夏其龍) 신부가 “백년”통유에 대해서**

언급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5월 2일 반포한 “백년 통유(通諭: 백성에게 가르쳐 알리는 것)” 중에 89년의 동구변혁을 예로 들어 천주교가 백 년 전에 밝힌 바 있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점을 다시 밝혔다. 홍콩 천주교 사회전파처의 주임인 하기룡신부는 홍콩 천주교회는 80년대의 중국의 개혁개방 후 중공정권을 상당정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입장에 타협을 하였으나 이번 교황의 강경한 입장의 선언은 홍콩천주교계에 대단한 반항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하 신부는 이러한 예리한 생각들이 97년 이후 홍콩천주교회의 처지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기본신념은 동요될 수 없는 것으로 행정적인 면에서 당국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이 밖에 북경이 진정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나라는 하나이며 외교와 국방이라는 범주에서만 같은 선상에서 통치하며 내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자는 안: 여주)”를 시행하여 신앙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 신부는 천주교의 기본원칙이 천부인권을 존중하며 이러한 입장은 영원히 견지될 것으로 공산주의의 “무신론과 유물론사상”이나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경시대도는 주요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천주교회는 일찍이 백 년 전에 사회적인 일에 대해 맑스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 (《明報》1991.6.18)

* 중국은 공품매의 추기경 위임을 비난하다.

중국천주교 주교단, 애국회, 교무위원회는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로마교황청이 공품매를 추기경에 위임한 결정에 강렬하게 항의하였다. 내용

은 “이것은 중국천주교회의 자주독립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중국대륙의 천주교사무에 대한 간섭으로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였다.

중국외교부는 이것이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개선에 새로운 장애요소를 만든 것으로 중국은 바티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주 분명하며 바티칸과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바티칸측이 먼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해야 하며 종교사무를 포함하여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공을 추기경에 임명하는 것이 중국인민에 대한 선의와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표시라고 밝혔다. (《星島日報》1991.6.19, 《明報》1991.6.21, 7.2, 7.4, South China Morning Post 1991.7.5)

* 중국당국이 비공인교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함

중공은 발전이 신속한 비공인교회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종교사무를 “和平延變(평화적 수단)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혁)”과 “反和平延變(무력적 수단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혁)”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대처하고 있다. 작년말 북경에서 거행된 전국공작회의에서 종교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의 보고를 통해 대륙교회의 7할이 “통제를 받지 않는”종교활동(사실상 “지하교회”를 지칭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총리 이붕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입장을 견지하며 과거 몇 개월내에 거행된 내부회의에서 이붕은 여러 차례 “지하교회”를 엄하게 다스리라는 주장을 했다. 이붕의 발언은 통전부 등에서 소집한 내부회의에서 발언한 것이다.

중공은 과거 종교활동의 통제 실패원인 중의

하나가 대륙내 종교활동을 신속히 파악치 못하는데 있다고 보고 현재 국안전부에서 많은 위장신도인 "선인(線人)"을 파견하여 천주교와 기독교 집회에 참가하여 정보를 수집케 하고 있다.

(《星島日報》1991.6..23)

*** 대만 기독교대표단의 첫 대륙방문**

대만의 교회대표단체는 남경의 삼자회 초청으로 4월 25일에 13일 간 첫 대륙방문길에 올랐다. 이 단체의 장은 성공회의 錢주교인데 단원은 장로회, 루터교회, 순도회, 미이미회, 영국성공회 및 천주교회의 대표를 망라했다. 그들은 49년 이후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공식적인 기독교 대표단이다.

방문기간 동안 단원들은 삼자회주석 정광훈의 접견을 받고 아울러 상해, 항주, 남경, 무한 및 북경 등의 여러 교회와 신학원 등을 방문하였다. 정광훈은 단원들에게 그도 대만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번 방문은 대만의 교회지도자들에게 공산주의 정치제도하에서 기독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가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들 역시 쌍방의 정부가 종교의 탐방교류를 허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방문단은 그들의 이번 대륙 탐방이 적극적인 의미를 띤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이 대표단의 대륙방문 결과 현지교회들이 신도들을 목양할 충분한 교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만대표단은 13일 간의 일정 중에 한 군데의 가정교회도 탐방할 기회가 없었다.

(《星島日報》1991.6.30, 《公教報》1991.7.12)

*** 삼자회의 정건업(鄭建業) 주교의 소견**

중국삼자회 발기인의 한 사람인 정건업 주교가

1991년 4월 11일 72세의 나이로 소천하였다. 이 밖에 《天風》에도 정건업을 주도한 적지 않은 글이 실렸다. (《天風》復總102, 103期 1991.6,7)

*** 중국의 외국인 기독교교사에 대한 감시가 나날이 심해짐**

최근 중국의 몇 도시의 외국인 언어교사는 점점 중국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었는데 원인은 한 해외간행물이 많은 외국인 기독교인교사가 교육을 통해 선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폭로하였기 때문이다.

둘리는 바로는 그 기사가 극도로 중국정부의 신경을 건드려서 유관부서에서 공안국에 즉시 명령을 내려 미국국적을 가진 교사들의 주소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들이 선교한 증거를 찾았다. 당국은 외국인 기독교인교사가 불법적으로 성경을 반입하여 학생들의 사상을 해치고 그들이 사회에 반하는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고 견책하였다.

정부당국은 대학 및 專上院校에 입학신청한 학생들의 기독교신앙여부를 조사하였다. 만약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면 학교당국은 장차 졸업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다. 한 외국인교사는 기독교를 믿는 두 학생이 당장 학위와 여권을 빼앗길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콩의 외국인교사회 대표도 중국의 외국어 교사가 나날이 가중되는 감시에 직면해 있으며 서안과 중국북부에서는 많은 외국인교사가 최근에 현지 상급기관에서 종교활동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이 밖에 중국 남방의 어떤 도시의 크리스찬은 당국에게 외국인 기독교교사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음이 발각되어 공안국의 감시와 협박을 당했다. 6월말 한 외국탐방단은 그 중의 한 학생을 만나보고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안

국에서 조사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안원들은 그들에게 만약 지하활동을 그만 두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두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공안원은 아울러 그들에게 그들이 교사의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News Network International 1991. 7. 9)

산둥교회는 1년제 신학훈련과정을 개설함

광둥 산둥교회는 현지실정과 조건에 따라 한 과정이 1년인 신학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훈련반은 두 학기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학생은 산둥시와 시의 근교 및 인근 현에서 온 모두 25명이다. 내용은 신도학(神道學), 성경정독(聖經精讀), 영성기초(靈性基礎), 선도법(宣道法), 교회사, 삼자에국강좌 및 기타 기초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天風》復總103期 1991. 7)

한·중관계

* 中國은 현재 韓中 양국간 민간차원에서 설치된 무역대표부를 정부차원에서 통상대표부로 격상시킬 것을 제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91. 9. 3)

* 중국교포들의 고국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둘러싼 각종 범죄와 탈선 등이 크게 늘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한약재행상이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교포들은 올들어 매달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에서 절도 윤락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가 하면 이들 중국교포를 대상으로하는 내국인의 신종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91. 9. 4)

* 외무부당국자는 9일 『최근 中國최고 정책결정자가 韓中수교관련 메시지를 韓國정부에 전달해왔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91. 9. 9)

* 中國은 현재로서는 韓國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吳建民 중국 외교부대변인이 19일 밝혔다. (조선, 국민일보 91. 9. 20)

* 韓國의 통일그룹이 中國 惠州에 건설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팬더자동차공장을 원래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경제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惠州의 외국 투자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팬더자동차측이 최근 중국당국과 여러 차례 접촉 투자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91. 9. 27)

* 申鉉禧 삼성물산회장은 27일 『田紀雲부총리 등 중국 고위급인사들은 예의 없이 경제분야에서 개혁·개방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자신들의 경제개방정책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1. 9. 28)

* 인신매매 전문브로커들이 인천항 국제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교포여성들을 서울지역의 유흥업소와 윤락가에 팔아넘기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인신매매 전문브로커들은 국내의 연고자를 통해 중국교포방문 초청장을 낸 뒤 중국현지에서 초청장을 파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 단속의 손길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91. 10. 4)

* 중국 공산당 江澤民총서기등 중국 수뇌부는 북

한의 金日成 주석과의 회견을 통해 중국이 적어도 내년 중에는 한국과의 국교교섭을 행하지 않을 뜻을 전달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北京의 외교관계자의 말을 인용 8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1.10.8)

정 치

* 中國은 蘇聯사태 이후 中國내에서의 평화적 체제변혁(和平演變)을 사주하는 외국의 음모 가능성에 대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홍콩의 중립계 明報가 29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91.8.30)

* 北京당국이 최근의 소련사태 이후 전국에 대해 동란예방을 위한 완전 경계태세에 들어가도록 명령한 가운데 中國軍 최고위 수뇌와 각 大軍區지휘관들이 곧 廣東省 省都인 廣州에 모여 30여 년 만에 최대규모의 「軍政治工作會議」를 가질 것이라고 홍콩의 明報가 9월 1일 보도했다.
(국민, 동아일보 91.9.2)

* 중국의 최고실력자 鄧小平은 소련 공산당 해체라는 충격적 사태에 대처하는 24글자의 최신지시를 전국에 하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 北京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이 3일자에 게재한 지시의 내용은 △냉정하게 관찰하라 △(스스로의) 기반을 다지라 △침착하게 대처하라 △힘을 기르라 △분수를 가리라 △결코 리더가 되지말라 는 6개조로 되어있다. (국민, 동아일보 91.9.3)

* 존 메이저 英國총리는 2일 中國은 지난 89년 天安門 민주화시위 탄압 분쇄 이후 계속되던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날 때가 되었으며 이제는 외부 세계와의 인적교류를 통해 바깥 세상사람들이 하

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91.9.3)

* 중국은 서방의 압력이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소련의 변화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중국 정부가 5일 밝혔다. (국민일보 91.9.6)

* 中國은 蘇聯의 사회주의체제 및 연방제 붕괴가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中國은 오는 18일 滿洲事變 60주년을 앞두고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를 공부토록 하고 애국의를 고취하는 등 국내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日本교도(共同)통신이 7일 新華 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동아일보 91.9.8)



(중국 이화원 내)

* 중국공산당이 소련공산당의 몰락에 따른 여파로 천안문사태 이후 최대의 시련에 처해 있다.

1백 년 만의 최대홍수로 내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설상가상으로 닥친 「소련쇼크」가 당내 강경보수파의 득세를 초래, 내년 가을로 예정된 14全大會를 1년 앞두고 다시 한번 심각한 保·華세력간의 권력투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경향신문 91.9.9)

* 中國은 毛澤東의 교리를 통해서만 공산체제를 바꾸려는 서방측의 제국주의적인 음모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관영 人民日報가 9일 주장했다. 毛澤東 사망 15주기에 즈음한 관련기사에서 毛의 「平和演變」에 언급하면서 『毛澤東 사상으로 무장해야만 제국주의적인 음모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91.9.10)

* 中國의 上海市에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상 첫 군사학교 「飛虹 소련軍校」가 생겨났다.

이제까지 중국에서는 天安門 사건이후 北京大와 상해에 있는 復旦大 등의 신입생에게 일정기간의 군사훈련을 의무화해 왔으나 국민학생에게까지 정치사상교육을 파급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일보 91.9.30)

* 李鵬 중국총리는 30일 중국이 변혁의 바람에 맞서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총리는 10월 1일인 건국 42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밤 인민대회당에서 베풀어진 연회에 참석한 8백여 명의 중국 관리와 외교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어떤 어려움도 인민들을 좌절시키거나 위협할 수 없으며 어떤 바람도 中國 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인민들의 결심을 흔들 수 없다』면서 『그 길이 험할지라도 미래는 밝다』고 역설했다. (국민일보 91.10.1)

* 北京市의 관리 및 軍당국자들은 6일 수도내의 군사시설들에 대한 보호조치강화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국인민해방군(PLA)의 한 고위장성도 공산당에 대한 군대의 충성을 촉구하는 등 소련공산당의 붕괴가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일보 91.10.7)

경 제

* 中國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들의 투자진출 요청이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韓中관계가 개선되면서 최근 中國으로부터 합작투자나 기술제휴 등의 경제협력 요청이 크게 증가, 올들어 8월말 현재 620건에 달했다. (동아일보 91.9.5)

* 중국의 「철밥통」이 깨어지는가.

지난 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중국에선 사회주의식 복지를 표현하는 데 「鐵飯碗」이란 말이 널리 유행해 왔다. 飯碗이 밥통인데 이것이 쇠로 만들어졌으니 깨질 염려가 없고 따라서 최소한도의 생활이 보장돼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중국노동자들의 나태한 근무자세와 무사안일한 관료주의를 꼬집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北京당국의 최근 전국노동제도 개혁회의에서 기업의 자체인력선발권과 노동자의 직장선택권을 점진적으로 수용기로 결정함에 따라 철밥통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91.9.27)

* 中國 고위지도부는 27일 폐막된 당중앙위원회 공작회의에서 공산주의에서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유지토록 하기위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中國 관영 新華 통신은 이번 공작회의에 관한 보도를 통해 『中國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천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영기업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91.9.28)



(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중국인들)

*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과 무역보복위협을 받은 중국이 이에 굴복, 각종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개혁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수입허가제 및 투자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개혁계획을 마련, 미국측이 제시한 시한인 지난 9월 30일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에 통보했다. (국민일보 91.10.5)

* 중국은 최근 하얼빈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27개 도시에 대해 「하이테크 산업개발

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정지구 건설을 인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北京발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개발구에서 하이테크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장경제제도를 대폭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대외경제개방 지구가 내륙지역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국민일보 91.10.9)

* 중국은 보다 많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4개 경제특구 중 하나인 廈門을 중국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이 8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1.10.9)

* 中國은 지난 89년부터 시작한 긴축경제정책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내년부터 개혁과 경제건설정책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홍콩의 中國系 신문들이 11일 보도했다.

文匯報와 大公報는 이날 중국 국무원총리 李鵬이 지난 9월 23일 中央工作會議에서 제출했던 정부계획을 발표하면서 中國은 지난 3년간 실시해 온 긴축정책을 위한 「活理整頓」이 기본적으로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일보 91.10.12)

〈11월 정기세미나 안내〉

주제: 최근중국선교 상황

강사: 유관지 목사 (극동방송심의실장)

일시: 1991년 11월 25일(월) P.M 7:00~9:0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중국을 위한 기도제목

1. 회중지역의 가정교회를 위하여.

회중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힘으로 많은 신도들은 교회를 떠났으며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약해져 있다.

회중지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석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부흥될 수 있도록...

2. 날로 심각해져가는 광주지역 청소년 범죄를 위하여.

중앙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하면 형사 범죄의 반수가 청소년이며 강도, 절도, 납치, 부녀자 강간 등 범죄의 수법이 날로 악랄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하루 속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3. 엄격해져가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위하여.

최근에 많은 지방의 종교정책이 전에 비해 엄격해졌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압력을 받고 있다.

강택민은 회견에서 종교정책에 대하여 말하기를 종교행정관리는 법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불법분자들이 종교활동을 이용하여 혼란을 조성하고 위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저지, 억제하며 해외 적대세력의 종교를 이용한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가정교회가 핍박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굳건해지고 환난을 통하여 신도들이 성숙해지도록...

4. 화남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화남지역의 몇 명의 가정교회 전도인들이 작년에 체포되어 3년형을 언도받았다. 목자 잃은 교

회들은 인도자가 없어 신도가 산산히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체포된 전도인이 옥중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굳건한 마음으로 목자 없는 상황하에서도 여전히 주의 성스러운 사역자들이 되도록...

5. 양육중에 있는 신도들을 위하여.

중국의 신도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영적 양육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열심있는 주의 종들이 이들을 양육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양육훈련에 참여한 종들을 지켜 주셔서 가르치는 자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교육받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6. 화동지역의 한 전도인의 교회사역의 재개를 위하여.

화동지역 삼자교회의 한 청년 전도인이 주님 때문에 작년 12월 체포되어 금년 1월에 석방되었다. 그는 비록 석방되었으나 관계당국에 의해서 교회사역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공안국을 움직여서 이 전도인이 교회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그가 이 일로 인해 실망하지 않도록...

7. 운남성 소수민족의 빈곤문제를 위하여.

이, 묘, 리쑤족 등 소수민족의 대다수는 높고 차가운 산지에 살고 있다. 그들은 생활이 어렵고 양식도 부족한데다가 입을 것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는 실정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8. 곤명시의 마약 흡연자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를 위하여.

곤명시 공안국장 楊明은 마약이 밀수되어 곤명시에 이미 심각한 해독을 끼쳤다고 한다. 돈을 많이 가진 자영업자들이 마약 흡입으로 가산을 탕진하였으며 또한 마약에 중독된 실업자들이 마약 구매자금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곤명시의 마약사용자 70% 이상이 범죄에 가담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마약흡연상황의 심각한 증가를 억제해주시고 관계당국이 마약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중독자들이 하루 빨리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활할 수 있도록...

9. 해외 신도들을 통한 신앙서적의 보급을 위하여 중국은 현재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경 및 신앙서적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있다.

많은 해외신도들이 사업, 친척방문 등으로 중국을 많이 찾고 있다.

해외신도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녹음기와 복음카세트, 성경책, 주석 등 신앙서적을 가지고 들어가 그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10. 본선교회의 협력선교사인 정선영 전도사를 위하여.

본선교회 협력선교사인 정선영 전도사가 9.4일 중국으로 들어가 지금 대학에서 어학훈련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기도후원과 재정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경건훈련을 통한 성령충만한 생활이 계속되도록...

11. 본선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돌아간 교포를 위하여.

사랑의 집에서 양육을 받고 돌아간 몇 명의 교포가 있다.

이들 중 가정불화로 이혼하려던 자매가 변화받아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목을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또한 처음 예수를 믿고 돌아간 형제 자매들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12. 서남의 가정교회와 그 지도자를 위하여.

서남에 사는 한 가정교회 지도자로부터 온 편지에 의하면 삼자회에 속하지 않은 가정교회들이 요즘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삼자회가 법적 규정을 만들어 가정교회 집회를 금하고 전도증을 발부하여 전도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의 가정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과 전도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 주시고, 당국의 태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13. 해외 중국유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중국유학생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학을 하거나 언어가 부족한 탓으로 현지 교회들과 연계를 맺지 못한다거나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한 신앙서적을 구하지 못해 처음신앙을 유지해 가기 어렵고 더 나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해외 중국유학생들이 유학 현지에서 교회들과 잘 연결되어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성경이나 신앙서적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소식

방송대

서울지역

9월의 첫가을 하늘을 신앙강좌로 펼쳤다. 석은혜 간사의 '신앙과 기도'는 기독교인의 생활 자체가 기도의 연속임을 강조 하는 열강이었다.

사랑반 분반공부를 지도하시던 이금복 선생님은 개인의 진로를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여 잠시 공백기간을 요청했다. 새로 김정하 선생님(방송대 졸업생)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움과 감사를 드린다.

9월 17일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찬송가 경연대회'에 합창 4팀, 중창 3팀, 독창 3팀이 신청하여, 이종호 형제가 하모니카와 기타반주에 독창을 한 1인 3역으로 3등, 선배의 체면치레로 사랑반 합창이 2등, 영원한 성경반 가수왕 양혜선 자매가 영예의 1등을 차지하였다.

성경반이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던 중 16명의 선남선녀가 방송강의에 출연한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여 빛(?)을 다 탕감하게 되었기에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9.22(토) 중추절 인사차 박성주 교수님 댁을 방문, 임원과 중국어문선교회 약간 명이 답소

를 나누고 진수성찬의 환대를 받았다. 대화중에 기도회를 갖기로 합의, 월1회 가정을 순방하면서 하되 그 첫 모임을 10월 중 박 교수님 댁에서 갖기로 하였다.

높은 가을 하늘에 자연을 만끽하고자 개천절에 검단산으로 야외예배를 떠났다. 성경반의 친교가 전무하다는 원성이 잦아 추계 야유회를 준비하였으나 입버릇처럼 친교가 없다고 말하던 그들(?)은 안 나오고 말없이 행동하는 12명의 제자들만 친목을 함께 나누었다. 물론 황금의 휴일(10/1 10/9)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교회 또는 개인적인 계획이 3일로 물린 것을 이해는 하지만 마지막 야외행사라는 점에서 아쉽기만 했다. 성경반에서 최초로 해발 650m고지를 완주하고 정상에서 개인의 특기와 단체의 단합을 과시하는 게임을 하였다. 물통을 달고 다니는 돼지(?)의 재기차기 기록과, 새색시(?)가 남자 앞에서 발을 번쩍 올리는 애교 있는 모습, 마른장작이 2m 이상의 넓이뛰기로 날으는 예비 등의 추억을 남기며 하산하고 시내에 도착하여 저녁밥과 다과로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성경반 학우 여러분, 남은 기간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경반 행사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바랍니다.

인천지역

결실의 계절이다.

열매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 가을엔 얼마나 나답고 우리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인천 중국어성경반은 2학기에도 매주 화요일 19시~21시까지 동암북부역 성암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식구는 선생님과 선배님을 합해 모두 9명, 아직 합창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못되지만 가족적이고 모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식구라서 좋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 성실히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요모임은 먼저 찬양 30분, 예배 30분(교재「사도신경과 주기도문」), 2부고급과 초급으로 나눈 분반공부 이렇게 수준있게(?)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9월부터는 공부한 성경귀절을 본토발음(?)으로 외워서 출석체크를 하고 있고 못 외울 경우 가벼운 벌칙도 가고 있다. 그랬더니 나 자신부터 모두 열심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회장소를 제공해 주신 목사님도 함께 모임에 참석하셔서 여러 모로 힘이 되어 주신다.

아, 참, 지난 8월 14,15일의 수련회에는 조성남 선배와 전미애 회장, 박현감 부회장, 이

상 3명이 은혜를 받고 오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92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다.

새소식으로는 8월 28일 우리를 지도하시는 주안도 간사가 중국으로 출국한 후 신금주 선생님이 오셔서 풍겨지는 모습처럼 성실과 열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고 있다. 그리고 9월 셋째주 모임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안도 간사가 오셔서 반가웠다.

10월의 계획은 매주 월요일마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중국교포를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몇 차례 시도했었지만 몇 명 외에는 참석치 못했었는데 10월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기도로 임할 작정이다. 무언가 하고 싶고 또 무엇인가 해야만 될 것 같은 때이다.

지금은 제철입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마지막 열매들이 탐지게 살이 찌도록 분부해 주옵시고/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햇살을 베풀어 주소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말을 떠올리며 남은 시간들을 탐진 열매 맺기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도를 드린다.

부산지역

주안에서 평안합니까?

「부산지역 중국어성경반」 「중국어문선교회」는 예전에는 하나의 대명사이었지만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해 그것은 바로 「나,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이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또 아픔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사명의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산지역은 8월 19일부터 주 1회씩 모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교재로 공부해오다가 9월부터 부산역 앞에 위치한 중화교회인 진광선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중국인 목사님 유요원 목사님으로부터 체계있는 성경공부와 발음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 5학년 선배이신 손상면 학우가 그 중화교회의 교인 이기에 저희 부산지역 성경반이 무더기로 도움을 입게 되어 하나님과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소와 시간이 바뀌다 보니 회원들 출석이 처음에는 저조한 편이었으나 차츰 홍보가 되어 많이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학우들과 성경반회원들과는 달리 부산지역은 귀로만 공부해왔으나 이제는 귀와 입과 눈으로 학습합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는 지적인 것만 습득하여 머리만 커다란 기형아가 아닌 전신(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도 자라야겠습니다. 영적인 것들도 밝아야겠습니다. 학업에도 충실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좋은 조건을 놓고 문을 활짝 연 우리 중국어성경반에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갖도록 오늘도 저희는 겸손히 머리숙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서울대교

살갓을 스치는 상쾌한 바람과 드높이 펼쳐진 가을 하늘과 짙푸르게 단장한 숲의 조화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에 족하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오묘하심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에서도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중국어 성경반은 지난 8월 29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91년도 2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모임날짜가 화요일에서 목요일 6시로 옮겨졌고 이번 학기를 맞이하여 운영체계를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1부 예배, 2부 성경공부를 하던 것을 바꾸어 모임시간을 찬양, 말씀, 기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강과 더불어 1학년 양성부 형제가 같이 모임을 가지게 됨으로써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저희 성경반을 더욱 의미있게 하였습니다. 말씀시간에는 1학년 학생들이 초급 중국어를 끝내고, 같이 중국어 성경(누가복음)을 읽

게 된 것은 지난 일학기를 알차게 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성경반에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또 저희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날로 발전하는 저희 성경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위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하대☐

인하대의 모임이 2학기들어 부쩍 활기를 띄고 있다. 이유는 인하대 성경반이 기도해 오던 훌륭한 강사인 인하대 대선배 신금주선생님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중국어성경반을 지도해 오던 주안도 간사의 해외출타중에도 여전히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모임이 상당한 정도 정착되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꾸준히 나오던 형제 자매들이 늘어남으로써 인하대 성경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2학기 모임도 역시 모든 학년이 다 학교에 나오는 날인 매주 목요일 5:30분부터 7:30분까지 성광교회에서 갖고 있다. 1부에는 이미 요한1,2,3서를 다 읽고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고 있으며 2부에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다. 초급은 중국어를 모르거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공부하며 중급의 교재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我的第一本聖經」을 교재로 삼아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공부하

고 있다.

이 성경반을 위해서는 모임이 더욱 활기차게 전개되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4학년인 회장 이민종 군과 김현주 자매 등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려주시길 바란다. 또 성경반을 거쳐갔던 형제자매는 적지 않으나 꾸준히 나오는 형제자매가 적은 사정이 개선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반에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란다. 또 여전히 1학년이 부족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1~2학년이 중국어로 성경을 배워서 14억 중국을 향한 비전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를 지도해 주실 지도교수님과 훌륭한 선생님도 더 보내주시고 준비된 자들을 불러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1학기에 장소를 제공해주신 성광교회와 양치호 목사님의 사역이 더욱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바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또 갖고 있는 성광교회내의 선교센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튼튼히 건축되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선교신학원☐

(북한선교통일 훈련원)

우리 선교신학원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북한선교와 세계선교를 위해 세워진 신학교이다. 우리학교에서는 우수한 선교사 양성을 위해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어학방면에 많은 훈련과정을 두고 있다. 금년 10월 1일 중국어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국어성경반이 창립되었다. 이 모임을 이루기 위해 약 3주 동안 많은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준비하였다. 첫 모임에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고 임원들이 선출되었다. 총무에 배명진 형제, 회계에 최영미 자매, 찬양담당에 송기현 형제가 선출되었다.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중국어문선교회에서 발행한 「我的第一本聖經」을 교재로해서 A, B반으로 나누어 A반은 박현희 선생님(2학년 중국어 담당교수), B반은 김성곤 선생님(1학년 중국어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성경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약2시간에 걸쳐 찬양,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의 순으로 갖기로 하였다.

이 모임이 주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신학원 전화번호는 792-7926~9 이다.

* 『중국선교핸드북』 출판감사
예배.

지난 9월27일 이수성결교회에서 본선교회 고문인 방지일 목사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회원을 모신 가운데 본선교회가 편역한 『중국선교핸드북』 출판감사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수고하신 봉사자,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 『중국어사역자 고급훈련』
개시.

9월 28일 예비모임을 가졌고,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6시에서 8시까지 본선교회사무실에서 중국어사역을 위한 “고급어문사역자훈련”의 첫 모임을 가졌다. 박성주 교수를 비롯한 12명이 모여 사영리 중국어교재를 듣고 통역해 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어를 공부하였다. 다음번 모임에는 미국 각 대학 중국어문연습소 간 「中國與社會」를 주교재로, “사영리” 듣고 통역하기, 중국어를 듣고 한국어로 써보기, 중국어 요절압송, 성어공부 등을 병행하는 본격적인 공부가 계속될 것이다. 이 모임에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총무에 김정하 형제, 서기 겸 회계에 이민선 자매, 간식담당에 강정에 자매 등이 수고하게



되었다.

기도 요청:

1. 제자화 훈련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선교회 사무실에서 이경준 선생님(아시안미션 대표) 지도로 훈련받고 있다.
① 관심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② 훈련받은 것을 중국교포를 위해 실제 활용 할 수 있도록...
2. 중국어문선교회 재정을 위하여.
선교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FAX, 복사기 등)이 채

워지도록...

3. 금요기도회를 위하여.
매월 세째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갖고 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재무장되어지며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후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 하도록...
4. 각 부서별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하기수련회 이후 각 부서별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각부간사 중심으로 잘 추진 되도록...
5. 창립 2주년 예배 및 총회를 위하여.

- ① 전회원의 참여를 위하여
 - ② 선교회 발전을 위하여
예배 회칙개정, 사업계획 등 행사 준비를 위하여...
6. 선교회 회원중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하여.
- ① 중국에 가있는 김일봉 회원의 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 ② 이민중 회원(인하대)의 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 ③ 교통사고로 고생하시는 이영희, 김신봉 회원의 치료를 위하여
 - ④ 남경화 간사 비염 치료를 위하여
7. 중국어사역자 고급훈련을 위하여.
- ① 고급훈련 과정이 어려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 ② 훈련된 회원들이 문서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 교육부 ▣

제6기 선교중국어 연수가 10월 7일부터 실시되었다. 초급중국어 A반, B반, 목요낮회화반이 개설되었고 강사로는 초급A에 김원춘, 초급B에 신금주, 목요 낮 회화반에 강계성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게 되었다. 또한 하기수련회를 계기로 하여 교육부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월 2일 첫모임을 가졌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월

요일 저녁 7:00에 안병국 간사 연구실에서 계속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모임의 주된 내용은 중국어찬양, 기도회, 교재의 학습지 개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모임을 위해 박주서 자매가 총무로 수고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 교육부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두 요청:

* 선교중국어연수를 위해서.

- ① 제6기 연수를 잘 마칠수 있도록
- ②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강사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도록

▣ 번역부 ▣

번역부는 그동안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회 사무실에서 약 3시간에 걸친 모임을 가져왔다. 「중국민속학」을 첫 부분부터 번역하는 중에 있으며 모이기를 힘쓰고는 있으나 직장에 매인 부원들과 지역적으로 오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는 듯하다.

서울대 중문과 1학년이며, 서울대 성경반의 회원이기도 한 박신영 자매가 새로 가입하여 번역부에 활기를 더해 주고 있다. 빈미정 간사의 출산휴가가

9월말로 끝나고 10월초부터 다시 번역부를 지도할 예정인데 번역부원 모두 기대와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구상 중인 「전문한역팀」이 현실화되기를 위해 그리고 좀더 분발할 수 있는 번역 부원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연구부 ▣

연구부는 지난 여름수련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부서는 있으나 모임이 없던 연구부가 비록 작은 인원이나마 모이기를 힘쓰는 몇 명의 동역자를 보내서서 모임을 가졌는데 연구간사가 해외출타중인 9월에 모임이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격주로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몇 번의 모임을 가졌다. 10월의 모임은 10월 13일과 27일에 가질 예정이다. 모임에서는 최근의 중국자료를 중심으로 운동해 나간다. 모임 참가자격은 중국선교에 있어서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회원이다. 또 연구부의 모임은 배우면서 사역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중국어 실력향상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연부부모임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바란다.

연구부사업으로는 여전히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라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번역

중에 있다. 이번에는 중국당국이 최근에 해외의 종교세력이 "화평연변(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혁)"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국선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중이다. 또 여전히 최근 중국정보들을 자료화하여 적지 않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필요로 하는 선교단체나 개인에게 공급하려고 한다. "중국기독교변역소사"의 정리 작업도 계속중이다.

기도 요청:

* 정기세미나를 위하여.
매일 마지막주 월요일 오후 7:00시에 정기세미나가 있다.
① 적합한 세미나 주제설정과 강사를 보내주시도록...
②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에 동참하도록...

출판부

출판부에서는 "중국을 주께로" 선교회보 14호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간했다.
출판부에서는 『福臨中華』를 출판하기 위해 교정중에 있으며 『기독교와 중국』 화보집 타자 완료, 『중국기독교 백년사』 출판을 위해 타자중에 있다.
"최근중국동향"을 알기 위해 신문 스크랩을 협조해 준 김영국, 박주서, 김순임, 박애숙 회

원께 감사를 드린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중국어 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기도 요청:

* 회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① 신문스크랩을 도와 주실 분을 보내주시도록
② 편집, 도안, 취재기자를 보내주시도록
③ 회지가 중국선교를 하고자 하는 교회와 사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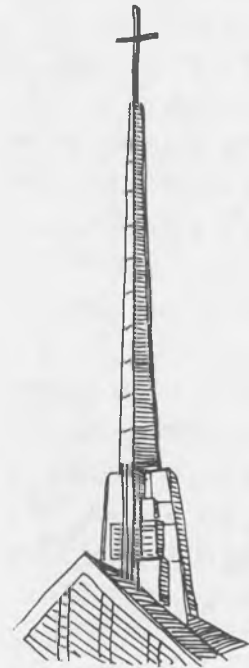
복음전도단

잠실중앙교회에서 주최한 추석맞이 방한중국교포 수련회가 9월 22일~9월 25일까지 양수리수양관에서 교포 200여 명을 모시고 열렸는데, 본선교회 복음전도단도 이 전도집회에 동참했다.

현재 신림동 "사랑의 집"에서는 교포 10여 명을 양육중에 있다. 그리고 매주 1회 중국교포 대상으로 홍보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회원동정

1. 주안도 간사가 8월 27일~9월 16까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2. 박성주 대표가 9월 26일 기독교한국사회문제연구회가 기독교백주년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마련한 정기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되어 「한국의 중국선교 -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가졌다.
3. 중국에 간 김일봉 회원으로부터 회원들께 기도요청의 편지가 왔다.



◇ 알 림 ◇

1. 본선교회 창립 2주년 예배 및 총회가 10월 28일(P.M 7:00~9:00)에 기독교 방송국 2층에배실에서 있습니다. 창립 예배로 10월 정기세미나가 대체되니 양지 바랍니다.
2. 11월 정기세미나가 11월25일 P.M 7시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극동방송 심의실장인 유관지 목사를 모시고 "최근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개최됩니다.
3. 본선교회는 다른 선교기관과 연합하여 매주 월요일(A.M 10:30 ~ 1:30)마다 CCC회관 현숙실에서 방한 중국교포 초청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후원, 물질후원이 필요한 실정이니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4. 매월 정기철야기도회가 매달 세째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에 은누리교회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10월 15일, 11월 19일, 12월 17일)
4. 중국어 사역자 고급훈련과정이 매주 토요일(A.M 6:00~8:00)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뜻있는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 정 보 고 (8 월)

수 입		지 출	
후원금	1,914,000	사례비(6인)	1,200,000
철야예배헌금	46,000	임대료	300,000
현지사역자들		관리비 및 각종세금	120,600
위한 헌금	28,600	우송료 및 엽서	42,700
감사헌금	235,000	교육비(세미나)	20,000
특별헌금	1,100,000	도서구입비	6,000
		자료구입비	100,000
		강사료(세미나)	30,000
		구독료	26,000
		후생비	39,500
		광열비	14,390
		소모품비	17,800
		통신비(전화·Fax)	32,890
		전산용지 및 복사	164,060
		사무용품	21,000
		여비교통비	4,100
		잡비	9,120
		선교헌금(7,8월)	20,000
		철야예배경비	32,650
		세미나간식	10,000
		현지사역자들	
		위한 예치금	28,600
		하기수련회지원금	119,200
수입계	3,323,600	지출계	₩ 2,358,610
전월이월잔액	-1,573,475	차기이월잔액	₩ - 608,485

♡ 후원자상황(8월)♡

구규식, 강정애, 금병달, 김구성, 김근수, 김승원, 김성순, 김학주, 김순임, 김길자, 김준마, 김승심, 김현주, 김종기, 김성례, 김정은, 김영선, 고희정, 남경화, 남용희, 노숙자, 노재은, 남궁양석, 문정희, 문승민, 박성주, 박지석, 박지화, 박종표, 박혜영, 박선남, 박순희, 박애숙, 박주서, 박희정, 박원석, 박영자, 박문식, 서기원, 서옥희, 석은혜, 신홍식, 안 천, 양혜선, 이덕형, 이인수, 이영숙, 이승열, 이지순, 이동화, 이종호, 임순자, 임종명, 오영미, 한승희, 유정근, 장경순, 장혜량, 전옥규, 전숙렬, 정영철, 정혜수, 주안도, 조성남, 서대문, 무명2.

단체: 동송교회, 동부교회(대구), 평산교회, 방송대성경반(서울), 방송대성경반(부산), 신림교회, 신림교회 3여전도회, 충정교회.

◎감사헌금: 김신성, 김용아, 남경화, 박화목, 송병권.

◎특별헌금: 이창호, 무명.

재정보고 (9월)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694,300	사례비(6인)	1,200,000
지 정 헌 금	2,000,000	임대료보증금	3,000,000
(임대보증금)		임 대 료	300,000
철야예배헌금	62,000	관리비(연료비외)	122,500
현지사역자를 위한 헌금	57,000	도서인쇄비	668,500
감 사 헌 금	50,000	우편발송료	152,500
특 별 헌 금	200,000	교육비(QT등록)	40,000
강사료수입	100,000	도서구입	12,500
		강사료(세미나)	30,000
		구 독 료 (신문)	4,000
		복리후생비	125,790
		사무용품비	98,600
		통신비(전화)	21,280
		여비교통비	3,900
		교제비(선물)	25,280
		잡 비	7,800
		선교비(9월)	30,000
		세미나간식	10,800
		철야예배경비	49,050
		현지사역자를 위한 예치금	57,000
수 입 계	₩ 4,163,300	지 출 계	₩ 5,959,500
전 월 이 월	-608,485	차월이월	₩-2,404,685
잔 액	3,554,815		

♡ 후원자상황(9월)♡

구규식, 강정애, 김경배, 김근수, 김길자, 김승원, 김구성, 김순임, 김성순, 김승심, 김준미, 김정은, 김학주, 김성례, 김중기, 김현영, 김현주, 고희정, 노숙자, 노재은, 남경화, 남용희, 남궁양석, 문정희, 박성주, 박중표, 박혜영, 박선남, 박순희, 박영자, 박애숙, 박지화, 박지석, 박주서, 박문식, 박희정, 배중실, 서옥희, 서기원, 석은혜, 신용식, 안 천, 양혜선, 이덕형, 이영숙, 이명화, 이중호, 임순자, 임중명, 오영미, 한승희, 한관수, 정혜수, 장경순, 장혜량, 장미숙, 전숙렬, 주안도, 조성남, JCC(2), 무명1.

단체: 동부교회(대구), 동승교회, 신림교회, 평산교회, 충정교회, 방송대성경반(서울), 촛불기도회.

◎ 감사헌금: 남경화(2회).

특별헌금: 김용배, 무명.

사무실임대헌금: 박호.

◎ 헌물: 김상현(도서1권), 방지일(도서4권), 무명(커피포트).

특별기금적립현황(8,9월)

명 목	이 월	수 입	지 출	잔 액
선교여행예치금	1,340,000			1,340,000
현지사역자를위한헌금	426,360	85,100	90,000	421,460
출 판 헌 금	1,201,000			1,201,000
사무실마련비	-1,490,000	2,000,000	3,000,000	-2,490,000
레이저프린터기대금	-1,800,000			-1,800,000
중국교포선교헌금	445,300			445,300
복사기구입지정헌금	500,000			500,000

◎ 현지사역자를 위한헌금: 김바울, 김베드로, 땅끝선교회.

10월부터 임대료보증금 600만원에 월400,000만원으로 재계약했습니다.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 능력을 구했지만
 순종하도록 약해졌다.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건강을 구했지만
 더 선한 일을 하도록 병약을 선사받았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요를 구했지만
 지혜를 배우기 위해 가난해졌다.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기 위해 권력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함을 알기 위해 좌절을 맛보았다.
 향락을 즐기기 위해 이것저것을 구하였지만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선물 받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구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그가 양
 망(仰望)하던 것 모두를 얻었다. 결국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
 으니 그는 크게 복받은 자이다.

『기도』 (두란노 서원), 짐그레함

□ 편집후기 □

세월은 세상의 어지러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소리없이 흘러갑니다. 어느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가을을 한아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길에 불어오는 찬 바람은 우리의 옷깃을 여리게 하고 아릿한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이 격식의 계절을 맞아 이곳저곳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서로 시샘하면서 자기들 자랑하는데 어쩔게(?) “중국을 주제로” 14호 편집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작은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연구부 제공으로 5회에 걸쳐 연재했던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이번호로 마칩니다.

이 가을에 우리들이 땀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지고 영적으로 성숙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매주 목요일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제자양육

을 하고계신 이경준 간사님 박원석 목사의 글을 식었습니다. 이 글이 회원 여러분께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회지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옥고를 보내 주신 송창기 교수님, 랑쓰웨 전도사님, 중국어 문선교회 각 부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회지가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홍판부에서는 회지에 실을 회원여러분의 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시, 간증, 기도문, 수필, 기행문 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홍판부에서는 회지 만드는 일에 동역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편집, 도안, 교정, 취재 기자 등

이 회지가 중국선교를 하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과 중국선교 사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석)